

관광학박사 학위논문

한반도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타당성 평가와 대응

— 동해권을 중심으로 —

경주대학교 대학원

관 광 학 과

한 형 주

2009년 12월

한반도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타당성평가와
대응
- 동해권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변우희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 합니다


2009년 12월

경주대학교 대학원

관 광 학 과

한 형 주

한형주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孫在根 

심사위원 趙茂原 

심사위원 朴鍾九 

심사위원 具本技 

심사위원 卞慶昌 

경주대학교 대학원

2009년 11월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목적	3
제 2 절 연구 범위와 구성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구성	7
제 2 장 한반도 고래분포 현황분석	10
제 1 절 한반도 고래분포 현황	10
1. 한반도 고래분포 일반현황	10
제 2 절 한반도 고래분포 분석	11
1. 한반도 고래분포 현황분석	11
제 3 장 이론적 배경	15
제 1 절 지역관광개발의 개념과 분류	15
1. 지역관광개발의 개념	15
2. 지역관광개발의 분류	16

제 2 절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개념과 방향	18
1.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개념	18
2.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방향	20
제 3 절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현황과 전망	23
1.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현황	23
2.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추이	31
3.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과제와 전망	32
제 4 절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평가	36
1. 고래관광 상품개발 평가	36
2. 퍼지이론 적용에 의한 타당성평가	38
제 4 장 연구설계	42
제 1 절 자료수집 절차	42
제 2 절 설문지 구성 및 내용	43
제 3 절 분석방법 및 단계	45
제 5 장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타당성 평가	46
제 1 절 표본의 특성	46
제 2 절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48
1. 소프트웨어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48
2. 하드웨어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49
제 3 절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인식도 평가	50
1. 소프트웨어 요인의 단위지역과 거주년도 간 차이검정	51

2. 하드웨어 요인의 단위지역과 거주년도 간 차이검정 -----	52
3. 소프트웨어 요인의 단위지역 영향도 평가 -----	54
4. 하드웨어 요인의 단위지역 영향도 평가 -----	55
제 4 절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타당도평가 -----	56
1. 퍼지모형 가치평가 -----	56
2.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타당도 평가 -----	59
제 6 장 결론 및 한계점 -----	75
Abstract -----	79
참 고 문 헌 -----	81
설 문 지 -----	86

<표 차 례>

<표 2-1> 동해 목시 조사 결과-----	12
<표 3-1> 고래테마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사업-----	24
<표 3-2> 최대·최소 합성규칙에 의한 퍼지메트릭스 연산-----	39
<표 3-3> 위험요인별 최종 퍼지집합 평가절차-----	40
<표 4-1> 표본의 개요-----	43
<표 4-2> 설문지 구성-----	44
<표 5-1> 고래관광 대상단위지역 및 표본의 특성 분포-----	47
<표 5-2>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소프트웨어 신뢰도와 타당도분석-----	49
<표 5-3>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하드웨어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50
<표 5-4> 소프트웨어 요인의 단위지역/거주년도 간 차이검정-----	51
<표 5-5> 하드웨어 요인의 단위지역/거주년도 간 차이검정-----	53
<표 5-6> 고래관광 소프트웨어 상품개발요인의 단위지역 영향도 평가-----	54
<표 5-7> 고래관광 하드웨어 상품개발요인의 단위지역 영향도 평가-----	55
<표 5-8> 실현가능도 평가계수(울산)-----	57
<표 5-9> 발생가능도 평가계수(울산)-----	57
<표 5-10> 고래관광문화체험 강화 요인(S1) 타당성 평가 분석(울산)-----	60
<표 5-11>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정비요인(S2) 타당성 평가분석(울산)-----	61
<표 5-12> 고래관광인프라구축 요인(S3) 타당성 평가분석(울산)-----	62
<표 5-13> 실현가능도 평가계수(부산)-----	63
<표 5-14> 발생가능도 평가계수(부산)-----	63
<표 5-15> 고래관광문화체험 강화 요인(S1) 위험성 평가 분석(부산)-----	64
<표 5-16>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정비요인(S2) 위험성 평가분석(부산)-----	65
<표 5-17> 고래관광인프라구축 요인(S3) 위험성 평가분석(부산)-----	66
<표 5-18> 실현가능도 평가계수(경주)-----	67
<표 5-19> 발생가능도 평가계수(경주)-----	67
<표 5-20> 고래관광문화체험 강화 요인(S1) 위험성 평가 분석(경주)-----	68
<표 5-21>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정비요인(S2) 위험성 평가분석(경주)-----	69
<표 5-22> 고래관광인프라구축 요인(S3) 위험성 평가분석(경주)-----	70

<표 5-23> 실현가능도 평가계수(포항) -----	71
<표 5-24> 실현가능도 평가계수(포항) -----	71
<표 5-25> 고래관광문화체험 강화 요인(S1) 위험성 평가 분석(포항) -----	72
<표 5-26>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정비요인(S2) 위험성 평가분석(포항) -----	73
<표 5-27> 고래관광인프라구축 요인(S3) 위험성 평가분석(포항) -----	74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9
<그림 2-1> 2005년도 동해안고래분포현황	13
<그림 2-2> 2006년도 동해안고래분포현황	14
<그림 2-3> 2007년도 동해안고래분포현황	14
<그림 5-1> 타당성 평가 모형구조	58

감사의 글

오늘을 있게 한 내 자신의 힘은 오직 김수영의 시 ‘풀’이었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세상에 있어 나는 언제나 나약한 ‘풀’이었습니다. 순탄하지 않은 나의
인생에 불어오는 세상의 바람은 늘 추웠습니다. 이제야 그 바람을 이겨
내는 힘을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먼저, 고집불통인 저를 끊임없이 독려해주신 변우희 지도교수님에게 큰
감사를 드리며, 심사를 해주신 교수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선희와 딸 한고은 그리고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이모,
친지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논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손자인 저를 세 살 때부터 오직 희생으로 키워주신
외조모님의 영전에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9년12월
한 형 주 올림.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1. 문제 제기

지역 관광목적지에서 관광객 욕구와 지역의 가치가 조화 될때 관광 산업과 지역문화가 병행하여 발전할 수 있다(변우희 · 이정열 · 한형주, 2009).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개발은 해당지역의 관광권역에 잠재해 있는 특화(specialization) 된 관광자원을 유인요소로 하여 관광목적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변우희, 2000; Yagi & Mohammadian, 2008). 또한 관광객의 관광 활동 가능성을 촉진시키고 보다 높은 유인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목적지의 기반시설 정비뿐 아니라 지방고유의 독특하고 차별화 된 유·무형 관광자원의 상품화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황창운 · 박명희, 2007; Komppula, 2006). 또한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에 명심해야할 사항은 이러한 관광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의식이나 상품화 인식도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해당 관광목적지의 제반특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인식도가 상품화 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전문가의 관점에서 제약요소를 충분히 검토하는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창현, 2007; Jackson & Inbakaran, 2006).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관광개발의 형평성과 민주성 확보를 통한 주민주권주의 확보와 관광개발수익의 주민배분이 실현되는 밑거름이 된다(이장춘, 1987). 본 고래관광 상 개발 인식에 관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동해안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동해안에 위치한 지역 부산, 울산, 경주, 포항의 권역은 각기 지역적 관광 자원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연중 가장 많은 고래 출현이 있는 지역이고, 해양관광의 성장의 지형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실질적으로 울산을 비롯한 포항지역의 지자체에서 관광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울산은 2005년도에 국제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가 개최되었고, 공해와 산업도시라는 울산의 이미지가 친환경 생태문화관광도시라는 이미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여호근, 2005). 지역관광개발 차원에서도 고래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특히 최근 한반도지역에 고래가 증가하면서 고래생태관광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고래관광자원에 대한 종합분석과 고래문화의 울산브랜드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특히 울산지역은 고래의 역사를 담은 선사유적인 반구대 암각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경업관련 역사문화자원, 고래회유로 등 고래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자원관련을 갖고 있다.

또한 포항의 경우도 동해안 포항시 구룡포읍의 다무포에서도 고래의 역사성을 살려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경주는 한국 유적관광의 랜드마크로 상징적인 지역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또한 부산의 경우는 한국 해양의 관문으로 해양관광의 중심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관광권의 주도권을 찾아 가고 있다.

이러한 동해안 지역 관광특성들을 분석해 볼 때, 한국 해양관광의 발전 방향은 동해안권역에서 큰 틀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울릉도와 독도의 국민적인 관심과 경주라는 역사적인 관광지역적 특성 그리고 울산의 고래관광자원과 행정적 적극성 그리고 포항과 부산의세계적 해양 요충지의 역할 등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고래관광을 테마로 한 생태관광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의 고래관광 상품개발이 기존의 지역관광개발패턴인 하드웨어 즉, 공급자 중심의 개발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될 경우, 실질적인 개발주체, 공급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자의 욕구에 개발주체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Baggio, R. A, 2008). 그동안 동해안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확대하여 새로운 고래관광목적지로 급부상하여 지역관광의 세계화 실현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지속가능한 고래관광의 생태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된 상품개발이 선행되어야 만 그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양과 육지를 연계한 동해안 지역의 고래관광개발전략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특화된 관광개발계획수립과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곽행구 외 3명, 2008 ; Shone & Ali Memon,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2009년 4월 한국 최초로 고래관광을 위한 관광선을 띄우고 본격적인 해양고래관광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울산을 비롯하여 역사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주와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울릉도의 독도 등 주변 관

광 자원들이 국내외 관광목적지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시도되었다. 특히 외국에서는 고래관광연구와 활동들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적인 고래관광분야의 연구가 시도된다는 차원에서 후속연구를 위한 선행적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격적인 고래관광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울산시와 동해안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본 연구의 방법론과 분석내용들이 정책입안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차적인 목적을 갖고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앞에서 제기한 고래 관광 상품 개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지역 관광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 특히 한국의 고래관광산업도 세계의 생태관광 추세에 맞춰 물론 국내 관광객에게도 다양한 관광자원을 선도해가는 해양관광산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실증적인 분석적 연구가 시도되었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도가 관광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요인을 파악하고 고래관광 상품개발요인들이 과 성공적인 지역 활성화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지역별 상품 개발 타당성 평가의 구성 타당도를 소프트웨어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로 세분화를 통해 지역관광개발을 통한 관광목적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하드웨어와 고객 중심의 소프트웨어가 조화된 차별화된 상품개발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인 선결과제인 것이다(Campo, & Garau, 2008).

특히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제기한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타당성 평가와 같은 관광개발 프로젝트 연구는 종래의 단순한 수치를 기초로 하는 정량적 분석보다는 인간의 애매성(ambiguity)과 미래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전제로 하는 관광공급자와 관광수요자의 복합적 관점에서의 다면적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Clayton, & Karagiannis, 2008).

이것은 의사결정 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언어적 가중치가 정성적 정

보로서의 일차적인 지표설정이 될 경우 단계적 퍼지집합의 이론의 적용에 의해 정량화시킴으로써 기존의 확률통계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학문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에 기초를 둔 관광학과 퍼지이론의 학제적 응용 연구가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래관광 상품개발이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가치성을 발휘함과 동시에 국제적 테마관광 상품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시도되었다. 또한 지역관광 개발이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의 편향적 기준에 따라 관광개발이 실행되면서 드러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지역관광 상품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적을 가지고 실증분석에 임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국내의 지역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급자 측면, 즉 지자체, 기관 등의 개발자에 국한한 연구들이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전반적인 관광 상품 개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급자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 점차적으로 지역주민의 인식도를 반영한 연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하드웨어와 고객중심의 소프트웨어가 조화된 차별화된 상품 관광 상품 전략적 대응이 유도 마찬가지로 통한 관광 목적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된 방향성은 동해안 4개 해안을 세부 단위별로 분류한 후 각 단위 지역의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고래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측정 변수들에 인식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는 데에 있다. 부산, 울산, 경주, 포항 해안 지역의 관광자원과 거주민의 인식이 지역관광 상품개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측정해 보는 것이다. 또한 지역관광 상품개발에 있어 큰 저해요인을 전략적 차원에서 파악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데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셋째, 본 연구는 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해안 4개 지역의 공급자 측면인 주민들과 수용자 측면인 관광객을 구분하여 모집단으로 해서 지역의 고래관광 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더욱이 기존의 관점에서는 수요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의

한부분만 분석하였으나 양시론적 입장에서 두 측면을 함께 조사 해 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요인을 찾아내어 지역 개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식도 평가 변수인 10개의 고래관광 상품 개발 소프트웨어 변수와 10개의 고래관광 상품개발 하드웨어 변수 들을 평가대상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변수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평가 변수로는 고래문화관광 축제 활성화, 고래관광의 외국과의 교류 촉진, 고래 관련 역사와 문화에 관한 스토리텔링, 고래자원의 관광 코스화, 고래 관광 문화프로그램 강화, 고래관련 친환경 전략, 관광지의 홍보기능 강화, 고래 생태 체험 관광 강화, 고래 음식 개발이다. 하드웨어 평가 변수로는 고래를 형상화한 랜드마크, 고래관광관련 체험시설, 고래 아쿠아리움 건립, 고래 돌고래 훈련시설 정비, 지역안내정보시스템 정비, 고래 관광객 편의 기반 시설, 고래 생태 연구 기관 확충, 고래 생태 박물관 및 전시관 조성, 고래마을 복원 등이 있다.

넷째, 본 연구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분석절차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변수들에 대한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베리맥스(varimax)법을 적용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지역별 각각 인식도 측정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았으며 평가에 적용된 척도는 비교의 비율 성을 높이기 위해 7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소프트웨어 상품개발요인과 하드웨어 상품개발 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투입변수를 단위지역으로 하여 세부적인 각각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원변량분석(MANOVA)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분석의 특징인 지역별, 요인별 상호 평균비교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해 준다. 셋째, 울산지역 주민들의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요인들이 각 해당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위해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동해권역 고래관광 상품개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타당성 평가요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지표변수를 선별하여 “고래관광 문화체험강화요인”, “고래관광 지역안내정보시스템정비요인”, “고래관광인프라구축요인”을 중심으로 타당성평가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포함된 구체적인 하위변수들의 실행가능도와 발생 가능도를 퍼지집합에 의한 가중치평가 연산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이어서 종래의 가법적(addictive)인 상대적 중요도 평가 차원에서 비가법적인 가능성이론에 기초한 언어적 평가치를 퍼지이론에

도입함으로써 고래관광 상품개발투자의 타당성평가에 의하여 각 지역별 평가요인의 수준정도를 직접 측정가능하게 함으로써 동해권역의 부산, 울산, 포항, 경주 지역의 구체적인 타당도를 산출할 수 있어 연구의 효용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해당지역별로 요인별 타당성 평가에 의한 의사결정지표산출결과를 상대적 우선순위확보와 투자의 효율적 배분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관광학 연구 분야에서 퍼지집합 이론의 응용가능성 제시와 유사도 추론의 방법을 통한 헤지(hedge)의 적용으로 의사결정의 세밀성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고래관광개발·계획 분야 뿐 아니라 고래관련 관광기업경영의 의사결정 연구에의 적용가능성도 시사해 보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 범위와 구성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동해권역으로 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동해권이 라 하면 지리적으로 경주에서 동해안을 따라 북한 접경지역을 말한다. 또한 환 동해권이라고 하면, 경북 북부지방의 해안지역을 말한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방향성으로 보면,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으로 불려진다. 본 연구에서의 동해권은 한반도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한 동쪽의 해안을 통칭하여 범위를 정하였다. 동해안 해안 4개 지역 부산의 해안지역인 기장군, 해운대구, 남구 지역으로 해서 부산 해안권과 울산의 해안 지역인 북구, 동구, 남구 지역으로 해서 울산 해안권 그리고 경주의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지역으로 해서 경주 해안권, 포항은 남구와 북구지역으로 해서 포항 해안권으로 나누어 연구대상 범위로 선정하였다.

이 지역을 연구 대상 표본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있는 해양관광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고래가 연중 가장 많이 출몰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해안이라는 표본의 대표성과 해안지역 주민의 동질성을 내재하고 있어 모집단의 의사 결정 추론에 용이하다.

포항과 경주, 울산 해안지역은 최대 고래관광 공급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부산과 울산은 고래관광 수요시장으로서 고래 관광 상품 개발의 타당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지역관광개발이 하드웨어적인 대규모 관

광개발 패턴에서 녹색관광, 생태관광 등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점진적 소규모 대안 관광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해안 해안지역은 해양생태관광의 표본추출 대상지역으로서의 그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1개월간 지속적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어서 본 설문에서는 단위 지역별 자료배분 비율은 인구비례할당추출법에 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구체적 조사방법으로는 잘 훈련시킨 조사원을 활용하여 각 지역민의 한 가옥을 임의로 선정한 후, 각각의 가옥을 20개 단위별로 체계화 시킨 후, 각 조사자와 첫 번째로 조우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조사원은 경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3학년 학생 50명을 선정하여 사전 관광 통계학 수업을 통해 충분히 표본추출방법을 학습한 상태이다.

2. 연구 구성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장에서는 연구의 제기 및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범위와 구성 등이 제시된다.

제 2장에서는 한반도 고래 분포 현황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고래의 역사를 통해서 고래문화자원을 살펴보았다. 한반도 고래 분포의 실증 현황을 통해 한국 고래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먼저 지역관광개발의 개념과 분류를 알아보았다. 고래관광객 개념과 구성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고래관광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추이와 과제 그리고 전망을 하였다. 고래관광 상품개발 타당성 평가를 위해 인식도 평가의 방법론적 접근과 퍼지모형에 의한 상품 개발 타당성 평가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제 3장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설계로 설문지 구성 및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 분석단계 및 방법에 대하여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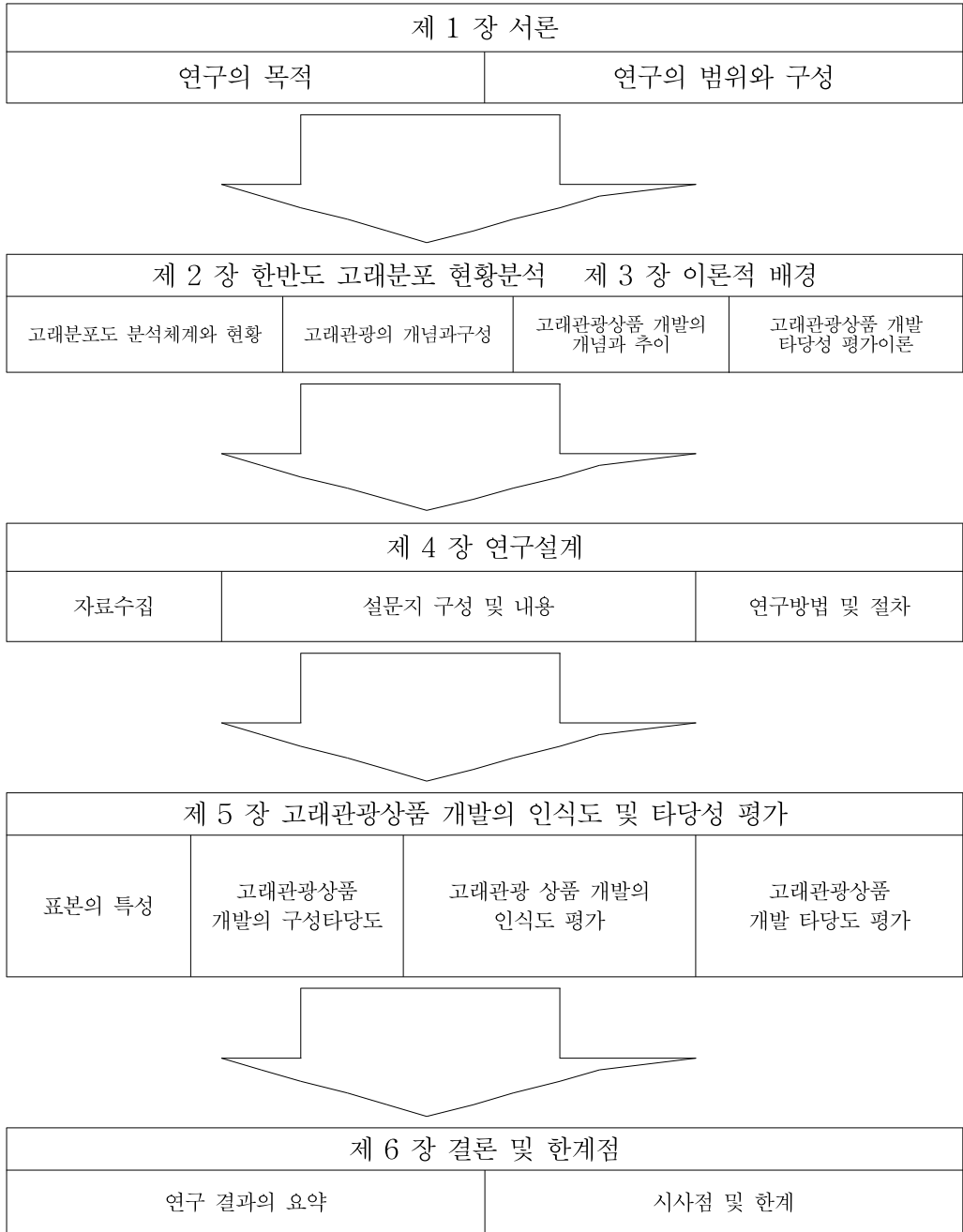
제 5장은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타당성 평가와 대응에서는 고래관광 상품

개발의 표본의 특성 및 고래관광 상품 개발의 구성 타당도를 소프트웨어 타당도와 하드웨어 타당도로 나누어 살펴본다. 고래관광 상품 개발 인식도 평가와 대응에서는 소프트웨어 요인의 단위 지역과 거주년도 간 차이검정 과 하드웨어 요인의 단위 지역 과 거주년도 간 차이 검정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인의 단위지역 영향도 평가와 하드웨어 요인의 단위지역 영향도 평가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고래관광 상품개발 타당도 평가와 대응에서 퍼지모형의 가치 평가를 활용하였다. 표본의 특성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래 관광상품 개발 타당도 평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분석된 연구결과를 요약한 후 고래 관광상품 개발 타당성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의 한계점과 그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방향은 동해안 4개 해안지역을 세부 단위별로 분류한 후 각 단위 지역의 주민들을 전문가로 전제하고 고래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측정 변수들에 인식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래관광상품 개발의 구성타당도 평가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고래 관광 상품 타당성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우선 이론적인 규명을 통하여 모형탐색과 변수선정 후 연구 분석 대상변수를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독립변수와의 관계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후 실증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우선 1단계인 인식도 평가에서는 요인분석, 신뢰도분석과 다원변량분석(MANOVA),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2단계 분석에서는 1단계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 분석인 퍼지집합 모형을 이용한 타당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림 1-2〉 연구 흐름도

제 2 장 한반도 고래분포 현황분석

제 1 절 한반도 고래분포 현황

1. 한반도 고래분포의 일반적 현황

우리나라의 고래 관련 역사유적이 신석기 시대부터 발견되고 있다. 울산 시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에는 60여점의 고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그물 혹은 작살에 맞은 고래가 표현되어 있어 고래를 식량으로 사냥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문화 역사 지리학회가 발간한 지명의 지리학 자료에 의하면, 원나라와 명나라 때에는 동해를 고래가 많다는 의미로 경해(鯨海)라 불렀다고 한다. 조선시대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고래의 모습과 고래 눈, 고래 기름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조선 시대까지는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한 고래잡이가 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김태완·양승영·김중옥·이연구, 2009). 하지만 19세기 말 부터는 미국 등 서구의 포경선들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진출하여 고래를 잡으면서 포경이 시작되어 점차 동해안에는 고래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 후 1986년 국제포경 위원회의 상업포경중단선언으로 최근 들어 고래의 개체수가 점점 회복 되고 있다.

한반도의 고래는 인간의 식량 어류의 한 종류로 음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 지금도 동해 연안에는 제사 음식에 돛배기라는 고래 고기를 반드시 올리는 것을 보면, 고래는 귀한 음식으로 취급 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향약집성방에서는 고래 고기는 맛이 짜고 독이 없으며 포(脯)로 만들어 먹으며, 장학과 고독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을 비롯한 포항에는 고래와 관련한 문화자원인 풍어제와 제당, 고래음식, 지명, 고래축제, 문화제들이 산재되어 내려왔다. 또한 한반도에는 고래와 관련된 지명들이 많다. 경북 영덕군의 고래불은 그전에 고래를 잡았던 곳으로 지명을 정했고, 경주시 감포읍의 고랫방은 고래가 많이 잡혔던 곳이다. 전라남도 흑산면의 가거도리는 고래달아맨데라는 지명이 있다. 고래미는 고래 떼가 죽어서 몰려 있던 곳이다.

한반도에서의 고래는 친밀하고, 신성한 동물로 인식되어져 왔다. 신라시대 토기인 토우장식장 경호에는 사람, 토끼, 뱀, 새 등과 함께 고래모양의 토우가 있음을 볼때, 신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래는 친밀한 동물임을 알 수 있다. 신라시대 성덕대왕 신종과 백제의 수덕사 범종의 종을 치는 당목을 고래모양으로 하였음은 고래의 신성함을 알 수 있다(서동주, 2008).

한반도에서의 고래는 산업자원으로도 활용하였다. 신석기 시대부터 고래 뼈를 가지고 화살촉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려사에서는 원나라가 경상도에 와서 고래 기름을 구해 갔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고래 기름은 제련, 제철에 쓰이는 초탄을 만드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고래 기름을 실제 생활에서 등유로도 이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의 고래는 우리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문화의 소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서도 고래는 어린이 동화책의 친근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격언에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도 있음을 볼때, 고래는 항상 우리들의 생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한반도 고래분포 현황

1. 한반도 고래분포의 일반적 현황

신석기 시대의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그림을 살펴보면, 흑등고래, 참고래, 귀신고래, 범고래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를 통해 예로부터 한반도에는 여러 종의 대형고래가 분포하였으며, 선박기술이 부족한 그 시절에도 고래를 잡았다는 것은 육안으로도 관찰이 가능하고, 포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바다에도 서식할 만큼 많은 수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흑산도 앞바다에서의 고래에 대한 표현을 자세히 하고 있다. 이는 조선 시대에도 한반도 동해안뿐 만 아니라 서해안에도 고래가 서식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반도의 고래분포에 대한 조사는 일제시대 부터이다. 20세기 초 포경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연안에는 참고래, 귀신고래, 밍크고래 등의 대형고래와 참돌고래, 포르포이스, 상괭이, 낫돌고래 등의 소형고래가 많이 서식했다. 지역

별로는 동해안, 특히 경북북부와 울산지역에 고래 및 돌고래의 종류도 많고 개체수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무분별한 포경으로 한반도의 고래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 포경위원회에서 고래 포경 금지로 고래자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최근 우리 한반도 연안 고래에 대한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199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한 우리나라 연안의 고래 목시 조사이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고래는 총 10종으로 밍크고래, 흑범고래, 범고래, 상괭이, 참돌고래, 낫돌고래, 큰머리돌고래, 큰돌고래, 까치돌고래, 짧은 부리 참돌고래이다. 이중 해역에 관계없이 자주 발견되는 종은 밍크고래이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동해에는 밍크고래, 참돌고래, 상괭이, 낫돌고래, 큰머리돌고래, 큰돌고래, 까치돌고래, 흑범고래, 짧은부리참돌고래 등 9종이 목시조사기간에 발견되었으며 횡수로는 밍크고래가 가장 많고, 이어서 참돌고래, 낫돌고래, 큰머리돌고래, 참돌고래 순으로 목시 되었다. 서해에서는 밍크고래, 참돌고래, 상괭이, 큰돌고래, 범고래 등이 발견되었다. 그중 밍크고래와 상괭이가 가장 많았다. 밍크고래의 경우는 2006년도에는 1,600마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연안에는 참돌고래와 상괭이를 중심으로 한 돌고래와 밍크고래의 개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영훈,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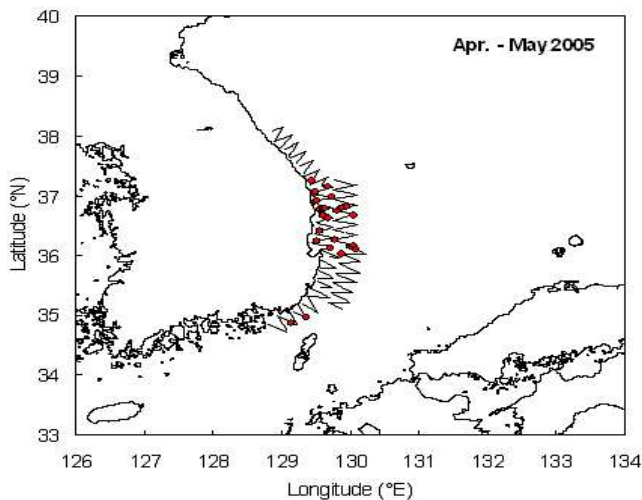
<표 2-1> 동해 목시 조사 결과

연도	계절	목시 거리 (마일)	고래류									
			밍크 고래	흑범 고래	상괭이	참 돌고래	낫 돌고래	큰머리 돌고래	큰돌고 래	까치 돌고래	미확인 대형 고래	미분 류돌 고래
2002	춘계	1,155	32	-	-	530	25	58	-	-	-	4
2003	춘계	1,082	16	-	6	430	-	-	-	-	-	-
	추계	578	1	-	-	-	-	-	-	-	-	-
2005	춘계	1,041	41	700	-	4,200	3	10	430	17	-	-
2006	춘계	1,078	25	-	3	2,302	3	-	-	20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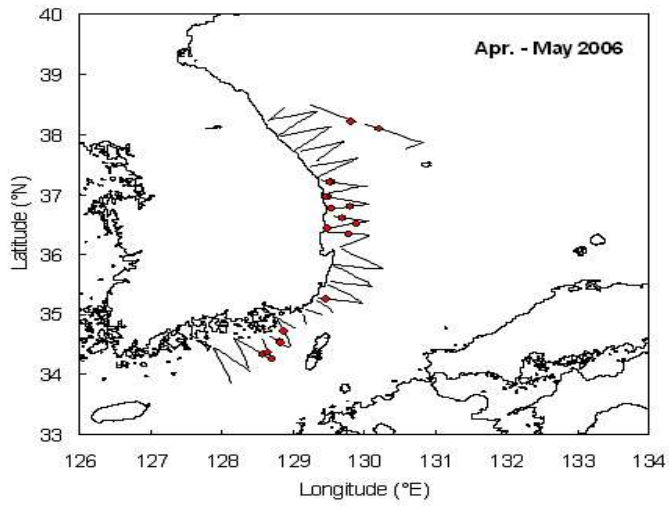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류의 생태계 기반에 관한 연구, 2007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조사한 고래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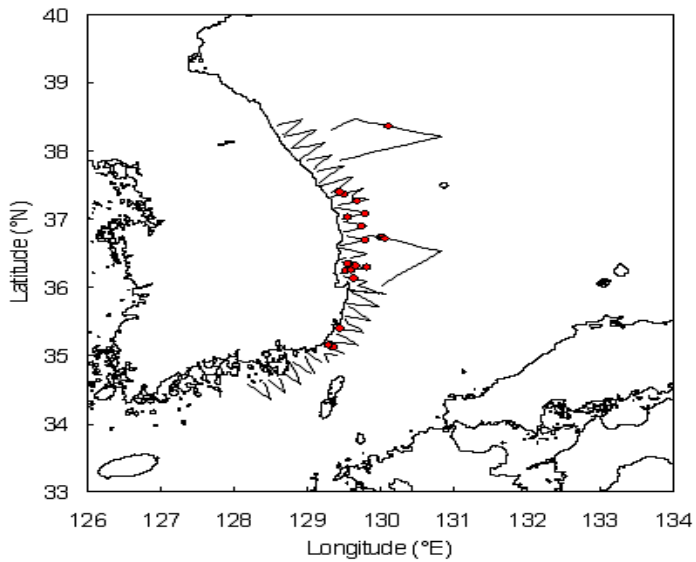
견 분포는 다음과 같다. 최근 2007년 동해 소단위 조사는 4월과 6월, 8월, 10월 총 4회가 수행되었다. 4월 조사에서는 밍크 3개 군과 흑범 고래 4개 군, 닛돌 고래 4개군이 발견되었으며, 6월 조사에서는 밍크고래 2개 군과 닛돌 고래 1개 군, 참돌고래 2개 군이 발견되었다. 대형고래의 대부분이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회유성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우리연안에 분포하는 개체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림2-1> 2005년도 동해안고래분포현황



<그림2-2> 2006년도 동해안고래분포현황



<그림2-3> 2007년도 동해안고래분포현황

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한반도 해안에서 고래가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고래조우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울산과 경주 그리고 포항 지역의 고래 출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지역 중 고래관경이 가능한 지역은 동해안 지역으로 고래관광 권역으로서 타당함을 보여 준다.

제 3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지역관광개발의 개념과 분류

1. 지역관광개발의 개념

지역 중심의 관광개발은 지역의 고유 환경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분산, 저밀도, 환경 친화적 개발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이 개발주체가 되며, 개발목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복지 증진 등에 있으며, 지역주민이 직접 관광개발주체가 되며, 개발목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복지 증진 등에 있으며, 지역주민이 직접 관광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관광개발의 영향과 지역사회관광개발의 영향(tourism impact)은 관광의 결과적 요소이다(Galvez, & Caro, 2000). 이에 비해 일반적인 관광개발은 대규모의 시장을 목표로 대규모, 고밀도의 관광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체로 주민소유의 대규모의 사유지를 필요로 하는 관광단지나 리조트 개발 등이 그 예가 된다. 따라서 개발 주체는 대부분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사업자가 주가 되며, 주민들의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며, 원칙적으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가 제한된다(Hashimoto, & Telfer, 2006).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긍정 혹은 부정적 형태로 나타난다. 경제적 영향의 긍정적 측면은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 지역경제의 개선, 고용 기회의 증가, 기반시설 투자개선, 교통시설의 개선이며, 부정적인 측면은 물가와 지가의 상승과 세 부담 확대와 생활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김형미, 2007). 사회문화적 영향은 생활의 질 개선, 레크레이션 시설 이용기회의 증가, 타문화의

이해 증진, 문화교류의 증진이며, 부정적인 측면은 범죄의 증가, 긴장의 고조, 사생활 침해, 민속 문화의 상품화를 들 수 있다. 환경적 영향은 자연적 환경의 보존,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보존, 지역 환경의 개선, 교통체증의 증가, 혼잡 증가, 소음공해 증가이다(윤지민, 2008).

이러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미치는 다면적인 영향 때문에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복잡하게 나타난다(Muloin, 1998).

관광개발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태도는 관광개발을 통하여 발생 또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인식 되는 기대와 영향에 대한 종합적 판단 및 정서적 반응, 그리고 찬성 또는 반대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윤지민, 2008). 이러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지역주민 각자의 삶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관광개발의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하게 된다(Komppula, 2006).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는 관광객의 관광활동 공간 이전에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기에 때문에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는 관광개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관광개발의 성과를 좌우한다(김성진·장병권(2006)).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태도와 지지로 인해 관광개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으며, 개발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Tovar, & Lockwood, 2009).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의 태도와 관심이 지역관광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고래 관광 상품 개발에 있어서도 관광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타당성 평가를 연구과제로 설정하였다.

2. 지역관광개발의 분류

최근에 지방자치체가 시행되면서 지역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관광과 연계한 지역관광개발이다(이장춘·남태식, 2003).

특히 대도시를 벗어난 농촌과 중소도시에서는 현대적인 시설물 보다는

지역의 특징을 잘 반영한 사업이 타당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적 차별화를 통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운영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지역관광 개발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견이 나타나고 있다. 즉 사업적인 접근으로 보다 시장을 세분화한 형태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한국관광공사, 2004).

지역관광개발의 새로운 접근은 지속가능관광을 위해 시장 세분화 관점에서 실버관광, 복지관광, 문학관광, 의료관광, 녹색관광, 교육관광을 비롯한 생태관광 등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적 정의는 미래 관광 발전의 기회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현재 관광객과 관광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관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세계관광기구, 2006).

더 나아가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자연자원 보존, 경제 발전 및 지역 주민의 참여와 함께 문화자원에 대한 보호, 관광객의 윤리의식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한국관광학회,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지속가능 관광은 미래의 관광 발전을 위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보호하는 가운데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광자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관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Jackson, & Inbakaran, 2006).

즉 지속가능한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개발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도 기존의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개발이 아닌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양시론적인 입장에서의 개발이 되어야 성공한다는 전제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지속가능 관광에서 대표적인 유형으로 거론되는 분류가 생태관광, 녹색관광, 문화유산 관광이다. 녹색관광(green tourism)은 농촌관광, 농업관광 등으로도 불린다. 최근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이 강조되면서 저탄소 녹색관광이라는 용어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관광으로 그 개념이 확대 되고 있다. 주로 녹색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농촌과 같은 지으로 지방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주요 관광대상으로 하며, 이의 활용과 보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도시 주민들에게 휴양과 농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문화유산관광(heritage tourism)은 문화관광의 한 형태로 특정 지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자원 뿐 아니라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을 말한다(Ying-zhi, & Lai-xi, 1999).

한 지역의 자연유산은 그 지역의 문화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자원은 문화자원과 함께 문화유산관광의 주요 관광대상이 된다. 문화유산 관광이 지속가능관광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 지역 자연과 유산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적 투자 없이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지속적인 관리만 되면, 지속적인 상품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Wheeler, 2000).

생태관광은 지속가능관광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 유형이다. 생태관광의 성장 속도는 관광객이 로하스시대의 인식이 강화되면서 보다 가속화 되고 있다. 생태관광은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한다. 첫째, 생태관광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보존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는 관광 유형이다. 둘째, 생태관광은 지역주민이 주도가 되어 그 이익이 지역에 환원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관광이다. 셋째, 관광객에게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태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관광이다.

본 연구 과제인 고래관광 개발도 생태관광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광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해권의 고래라는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고래를 통한 자연 생태의 소중함 알리고, 이를 통한 관광 수입을 극대화하여 지역민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해권의 고래관광 개발은 관광이 나아가야 할 흐름에 부응한 생태관광 개발로서 그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제 2 절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개념과 방향

1.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개념

관광의 형태에 있어서도 가족 중심의 테마형 관광이 선호 되면서 유적관광에서 생태관광으로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로 자녀의 교육 차원의 관광도 생태관광 활성화의 원인이다. 주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국민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국민 관광 욕구는 더욱 커져 갔다(이태희, 2002). 바다와 어촌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인문자원은 가족 중심형 및 테마 관광형의 관광 패턴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광 자원이다. 고래 관광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태 자원에 대한 보전의식이 제고 된다는 점이다. 생태 관광 상품 개발로 자연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

이며, 이를 보존해야하는 당위성을 알게 된다는 것은 지구 환경 보호 차원에서 큰 소득이 될 수 있다. 고래관광도 이제는 단순히 동물원에서 돌고래 쇼를 관람하는 시대를 벗어나 지역개발을 통한 관광단지 조성 즉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적인 단계까지 나아가고 발전되고 있다(이현익, 2006).

고래관광의 개념접근은 고래구경인 “Whale watching”에서 출발하였으며, “Whale watching” 야생에서 자연 상태로 유명하고 있는 고래류를 지상, 선박 및 항공기로 구경하면서 즐기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래관광산업은 “whale watching industry”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whale watching industry”은 주로 경제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2008). 이러한 고래구경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그 개념을 추론해 보면, 1955년 겨울 Chamberlin이라는 사람이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로 회유하는 귀신고래를 보기 위하여 한 사람당 1불의 승선료를 받고 배를 운항 하였는데, 자연주의자 Gilmore가 이것을 곧바로 인수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이 고래구경의 시초가 된 것이다. 고래관광 수단은 어선, 고무보트, 요트, 유람선, 여객선, 헬리콥터 및 육상 플랫폼 등이다(Heckel, 2001).

국제포경위원회는 1993년 제45차 연례 회의부터 고래관경을 상설 의제로 채택하고, 이후 현재까지 회원국과 세계 고래관경의 진흥과 방향을 모색해 오고 있다. 세계의 고래관광을 살펴보면, 1998년 87개국에서 9백만 명 이상이 고래 관광을 하였으며, 최소한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현재 2008년도에는 1천만 명이 고래관광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고래관광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역사적, 정서적으로 친근한 동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동화집에 나오는 고래는 친근하고 항상 포용하는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어서 이를 보고 자란 어린이들은 고래에 대해 친구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다(환경운동연합, 2005). 사회적으로도 ‘칭찬은 고래도 웃게 한다’는 책명처럼 고래에 대해서는 우직함과 포용적인 요소로 통용되고 있다(권일남, 2006). 역사적으로도 경주 지역의 ‘반구대 암각화’에 있는 벽화를 보면 선사시대부터 우리 생활에 고래는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국가적으로도 고래관광에 대한 관심은 고래 회유료를 분석한 고래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볼 때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박진화, 2009).

고래관광 활성화를 계기로 고래와 관련한 상업 포경이 금지되기 전에 포경

과 관련한 전통 문화의 소멸된 위험성에 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래관광을 계기로 고래 전통 문화가 있는 어촌이 고래 관광 전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고래생태관광 마을을 조성하여 사라져 가는 고래 관련 전통 문화를 복원, 계승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어촌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촌을 복합 산업화로 1차 산업의 수산업과 관광 사업을 병행하는 2.3차 산업을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의 관광자원 현실에서 한국의 경우, 고래관광 상품 개발은 특정 지역 동해안 해변 지역만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고래 관광은 이제 한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서의 동해안 관광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국내 관광에 있어서도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소명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관광 상품으로서의 자리를 잡는데 노력해야 한다.

2.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방향

1)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구성

생태관광의 관점에서 고래관광은 바다 생태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의 활성화라는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속 가능한 관광이념에 부합한 관광형태이다. 동해안 연안의 중요한 바다 생태 자원인 고래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될 고래 생태관광 상품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고래관광은 고래를 직접 바다에 나가서 구경하는 관광상품을 중심으로 고래 관련 역사, 문화자원이 결합되어야 보다 사업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고래 관광은 고래와 환경에 대한 대중의 높아진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고래를 적극적으로 이용, 보존 및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의 이용을 실현 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고래관광은 해양관광으로서 국내 도서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도 있다. 특히 동해안의 경우 울릉도와 독도는 국가적인 관심이 고조 있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동해안 주변 내륙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지속적인 관광이 가능하다.

본 연구 지역인 부산과 울산, 경주, 포항지역은 동해안 지역 경제와 환경의 중심축이다. 부산 지역은 해외 관광의 교두보로 항공과 해운의 교통이 원활하

여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울산은 현재 고래테마도시로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고래관련 문화자원이 풍부하며, 고래축제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하여 호텔 등 위락시설이 잘 갖추어진 관광도시이다. 포항은 동해안의 입구로서 화려한 자연경관과 전국에서 가장 해가 일찍 뜨는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매년 새해에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가 있어서 산업적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경상북도에서 동해안권역의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중 동해안 관광 탐방이 선도 사업으로 하고 있다. 동해안의 5개 시·군 중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녹색관광 탐방의 메카로 조성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이러한 관광 인프라들은 동해권의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타당성을 더욱 높여 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또한 본 연구가 국내 관광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실질적 명분을 갖게 한다.

2)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기능

한반도의 고래관광 상품개발은 초기 단계이다. 동해권의 경우에도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점 외에는 고래관광 상품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기본적으로 관광 상품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상품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구성체로 이루어져야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 상품의 구조와 그 조합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고, 각 요소와 요소 수준의 결합에 따라 관광 상품의 성격과 품질이 상이해지고, 이에 따라 관광객의 만족도 달라지게 된다.

관광산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류하고 있다. 하드웨어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과 관광객 이용시설(suprastructure)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도로, 교량, 용수, 전기, 가스 등이 해당되며, 후자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건설된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식당,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의미한다.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호텔,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쇼핑센터 등 하드웨어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만들어진 시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 측면에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와 시설을

갖추어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고 고객의 욕구(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광은 기분전환을 추구하는 문화행위이자 고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활동이다. 따라서 매력적인 관광 상품의 개발, 관광서비스의 질적 향상, 매력적인 이미지의 창출과 홍보 등 소프트한 가치가 매우 중요시된다.

그러므로 상품개발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한 양면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이 불가피하며 관광 상품도 따지고 보면 무형상품이기 때문에 소프트만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단지 소프트적인 서비스의 이면에는 하드라는 물질적인 요소가 뒷받침해줌으로서 존재하는 상품이라고 하겠다. 현대 관광의 특성은 과거의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활동에서 급속히 직접 관광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관광 목적지에서 휴양, 스포츠, 위락 등 종합적인 관광여가활동 즉, 복합적인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자아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Campo, S. B. & Garau, J. B. 2008).

이러한 측면에서 고래관광개발과 같이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생태관광자원개발의 경우,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 개발은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고 한번 시행되고 나면 일반 제조상품과 달리 원형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이 존재함으로 매우 신중히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이양섭, 1994). 더욱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점진적이고 소규모로서 지속가능한 하드웨어개발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현대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관광개발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광객의 욕구변화에 수월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하드웨어적인 관광기반시설이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수요자의 실질적인 요구(wants)나 욕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상품개발이 선행되지 않고는 지역관광개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변우희 · 이정열 · 한형주, 2009). 더욱이 소프트웨어상품은 지역의 총체적인 매력을 대변할 뿐 아니라, 관광목적지의 이미지 제고, 지역문화관광 정체성 확보 및 관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임은미 · 송경용, 2006; Galvez, et. al. 2000). 따라서 지역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목적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하드웨어와 고객 중심의 소프트웨어가 조화된 차별화된 상품개발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인 선결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고래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공급자 관점과 수요자 관점에서의 중요도로 평가하여 양시론적인 입장을 조율하여 고래 관광 상품 개발이 지역과 관광객에게 상호 발전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고자하는데 정책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3 절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현황과 추이

1.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현황

한반도의 고래관광상품 개발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이다.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 등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해안 지역의 어촌 활성화 방안 구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관경선 출항과 포항시 구룡포 다무포 마을의 타당성 조사, 동해 울진 연안의 사업성 검토 및 제주도의 고래 양식장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울산에 있는 고래 박물관의 관람객은 2005년 개관이후 2009년 현재 80만에 육박하는 경이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미국, 일본, 호주에서는 고래자원을 토대로 하여 체험 관광 사업, 관광사업,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각국의 자원특성 및 지역여건에 따라 고래를 테마로 하여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 중이다. 한국의 고래 관광 상품 개발에도 지역적여건과 더불어 국제 관광 시장 환경에 따라 적용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지역인 동해권의 고래 관광 상품 개발도 생태적환경과 고래 관광자원과 지역자원을 토대로 하여,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개발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국내 고래관광 상품개발 현황

(1) 울산광역시의 고래관광 상품 개발 현황

국내에서 고래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은 울산광역시이다. 2008년에 울산시 남구가 고래관광 특구로 지정되면서 고래관광 상품 개발이 가속도를 더해 왔다. 2009년 4월에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고래 관광선을 출항하기도 하였다.

<표3-1> 고래테마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사업

구분	1단계	2단계
하드웨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래테마거리 ○ 고래문화마을 ○ 고래분수광장 ○ 씨워킹/터치폴(일산해수욕장) ○ 반구대 암각화지구 ○ 간절곶지구 ○ KTX 울산역 광장지구 ○ 울주 강양-간절곶 해안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래조각공원(장생포) ○ 대왕양지구(고래체험장) ○ 관광유람선 친수항 ○ 고래테마공원 ○ 고래컨벤션센터
소프트웨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수구슬 관광상품화 사업 ○ 관광선 복합상품 개발사업 ○ 고래축제의 명품화 사업 ○ 고래역사문화답사 상품 개발 ○ 고래음식문화 특화사업 ○ 국제고래문양 교류전 ○ 고래생태교육사업 ○ 외국 고래박물관 교류사업 ○ 고래언어분석 사업 ○ 반구대암각화 국제학술대회 ○ 고래디자인 상품화 사업 ○ 암각화 애니메이션 개발사업 ○ 국제고래문양 교류전 ○ 외국 고래박물관 교류사업 ○ 고래Story-Telling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래조각전 ○ 고래테라피-울산의대 연계사업 ○ 강동유원지-관광선 연계사업

자료: 울산시, 2008

또한 울산 지역에는 예부터 고래축제가 14회째 이어져오고 있고,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고래연구소도 울산에 위치하고 있어 고래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김혜영, 2007).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고래테마관광도시 사업의 단계별 추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기반시설의 정비와 고래테마도시의 홍보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의 고래 관련 자원의 발굴과 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환경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고래테마도시의 이미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의 조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체험시설의 마련과 함께 주변 관광지와 연계로 고래테마도시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사업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고래테마관광도시의 미래비전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고래를 부활시키는 도시가 되도록 하고, 이후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상품화를 바탕으로 고래가 살아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의 고래도시 이미지 확보와 브랜드로 세계적인 고래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2) 해외 고래관광상품 개발 현황

(1) 미국 뉴베드포드 고래역사 국립공원

뉴베드포드는 멜빌의 소설 모비딕(백경)의 배경도시로 과거부터 고래수도(Whale Capitla)라고 불릴 만큼 포경산업이 발달된 도시였다. 19세기 세계 포경산업의 수도였던 뉴베드포드지역의 고래관련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정된 최초의 역사국립공원으로 199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 공원은 시내구역 내에 역사유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최초의 사례이며 연간 380만명이 공원 구역내 고래박물관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들을 방문하고 있다. 뉴베드포드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은 0.14km 이며 고래박물관과 더불어 예배당, 과거의 관세청 건물, 은행건물 등 총 70개 건축물이 역사유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방문객들은 우선 방문객센터를 방문하여 뉴베드포드시의 포경업관련 역사화 각종 유적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안내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공원내 각종 유적을 관람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래와 관련된 역사정보를 얻게 된다(Fudge, szewciw, & Schwalb, 2009).

뉴베드포드 고래박물관 국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래박물관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래박물관으로 1907년에 처음 개장하였으며 Old Dartmouth Historical Society라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연간 방문객 규모 100만명). 포경업과 관련된 각종 어구, 포경선 선체, 선박용품과 관련된 흑등고래와 향유고래의 뼈가 전시되어 있다. 고래박물관의 사업은 고래관련 역사유물의 전시와 더불어 고래와 관련된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뉴베드포드 국립공원과 고래박물관은 장기간의 계획을 바탕으로 과거의

포경업관련 역사유적을 철저히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고래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함과 동시에 관광산업을 함께 발달시켰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2) 미국 씨월드의 돌고래 체험관광

올랜드 씨월드와 디스커버리 코브는 민간기업인 Busch Entertainment Corporation 맥주회사인 버드와이저의 자회사의 소유이며 1973년 개장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큰 해양테마공원으로 돌고래와 범고래 등 해양생물을 주제로 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씨월드의 2007년도 방문객 규모는 5백8십만명으로 미국 전체 테마파크 내에서는 7위를 기록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12위의 방문객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올랜드 씨월드의 고래관련 체험프로그램은 돌고래(dolphin) 79마리, 범고래(killer whale) 9마리, 흰돌고래(beluga whales) 4마리 등 100여 마리의 고래가 4가지의 다른 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Dolphin Cove(돌고래 체험장): 돌고래를 직접 만져보고 먹이를 줄 수 있도록 마련된 Dolphin Cove는 야외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Dolphin Cove에서는 방문객들이 돌고래를 직접 만져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돌고래와 관련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Dolphin Nursery(돌고래 치료센터)는 씨 월드내 돌고래의 사육 및 각종 치료를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돌고래의 탄생에서부터 성장과정을 관람객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코브의 돌고래 체험장의 돌고래체험 프로그램은 Dolphin Package를 구매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1회 30분간 운영되고 참여인원은 10명 내외로 제한된다. 각 체험프로그램에는 2명의 가이드와 사진사가 동반되며 1~2마리의 돌고래(Bottlenose dolphin)가 참여 된다. 돌고래의 생태특성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돌고래 먹이주기 체험, 돌고래의 등에 올라타고 함께 수영을 하는 유영체험, 돌고래를 조련하는 조련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공원 1일 입장객을 천명으로 제한하여 공원 내에서는 별다른 혼잡이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각종 물놀이시설과 식당시설, 편의시설 등도 별도의 추가요금 없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 구역 내에서는 식사 및 휴식활동, 체험활동이 매우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3) 뉴잉글랜드 보스턴 관경선박운영(Whale Watchin) 사업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은 1969년 개관하였으며 해양생물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보스턴연안의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보호 사업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연간 1,300천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 전체 600여종 20,000마리의 해양생물이 전시되고 있으며 환경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족 환경교육프로그램, 10대 청소년프로그램, 여름프로그램 등 다양한 환경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보스턴의 고래관찰 관광상품은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을 포함하여 4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스턴 연안에서 30마일 정도 떨어진 Stellwagen Bank 해양보호구역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해양보호구역은 북아메리카 참고래와 흑등고래, 돌고래의 회유경로로 과거부터 고래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었다. 보호구역의 고래 회유 경로를 따라 고래의 출현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을 포함한 연안 크루즈 회사에서 관광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연안 100만 명 정도가 고래관찰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뉴잉글랜드의 관광상품은 운영 시기는 4월~10월이며, 1일 2회, 주말 3회 운항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1인당 4만원(\$39.75)이다. 관찰시간은 총 4시간(왕복 이동시간은 3시간이며, 고래관찰시간은 1시간이다. 관광선박(선명: Voyager III)는 고래관찰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용선박으로 350명이 탑승가능한 쌍동선(catamaran), 관광선박은 보스턴해상운송협회(WTA)의 선박을 임차/공동 판매 방식으로 사용한다. 매년 4월~10월간 운영되는 고래 관찰 상품을 통하여 Stellwagen Bank에서 고래를 관찰할 확률은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 100%에 가까우며 고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 방문권을 발행하고 있다. 고래관찰선박에 탑승하여 Stellwagen Bank에 도착하게 되면 안내해설사가 고래의 종류와 관찰 포인트에 대하여 설명해주며 이밖에 생태환경에 대하여 안내해준다. 보스턴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의 관광사업은 단순히 해상에서 고래를 관찰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래에 대한 환경교육을 겸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4)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치초(太地町)

오사카 남부 기이반도에 위치하는 와카야마현 다이치초는 흑등고래, 돌고래 등 고래자원이 풍부하여 일본에서 최초로 포경이 시작된 포경발상지이며 일본의 포경산업을 주도하던 곳이다. 최근 포경이 어려워지자, 고래관련 역

사유적, 고래음식, 풍어제 등 다양한 고래자원을 관광 자원화 함으로써 마을의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다이치초의 고래관광의 특징은 마을의 성장 동력을 포경에서 고래관광으로 전환한 점이다. 공공과 민간에서 개발, 운영 중인 다양한 형태의 고래관광 상품이 있다. 다이치초는 일본 포경의 발상지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400년 이상 된 오랜 포경역사를 거치면서 다이치 주민들은 고래를 단순히 생존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있는 생활문화로 인식하고 있다. 고래와 관련된 역사 유적으로 표류인 기념비, 포경 준비소(古式捕鯨支度部屋), 신사 풍어제, 신사 전야제, 등이 있으며, 문화자원으로 고래음식, 전통 노래와 춤, 식기와 장신구 등 생활소품 등이 있다. 현재 다이치초에서는 마을의 고래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유형의 역사유적을 보전하고 무형의 문화자산인 풍어제와 신사 전야제등을 축제화 하고 있다.

고래관광시설로는 공공 고래관광 시설은 고래박물관, 돌고래 및 범고래 쇼장, 고래 체험장, 포경선 자료관, 수족관이 있다. 박물관, 고래쇼장, 고래 체험장, 수족관은 동일한 단지에 있으며, 박물관 입장객은 전시물뿐만 아니라 실제 고래를 관찰하고 만져보는 등 고래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관람비용은 성인 1,050엔, 초등학생 630엔, 유아 210엔으로 고래박물관의 체험장, 수족관 관람가능하다. 기념품은 고래를 이용한 음식, 고래 이빨 조각품, 고래모양 공예품 등 개발 판매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카약을 이용한 고래 관찰 1천엔, 돌고래와 악수 100엔, 돌고래에게 먹이주기 200엔, 돌고래와 놀기 1천엔 이다. 민간 고래체험 시설은 대표적인 시설로 돌고래베이스, 월드 돌핀리조트임. 이곳에서는 슈트를 입고 돌고래와 수영하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5)일본 고치현(高知縣)의 관광사업

고치현의 관광은 1989년 무로토 해역에서 말향고래를 관찰한 것이 그 효시이며, 현재는 크게 무로토 해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과 토사만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역을 나뉜다. 동부의 무로토 해역은 혹등고래 등 이동성 고래가, 소부의 토사만 서남해역에는 브라이즈고래와 돌고래류등 정착성 고래가 주로 관찰된다. 고치현 관광의 특징은 어업인이 5톤 미만의 어선으로 관광(Whale Watching)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현재 8개 정도의 어협에서 관광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어협의 연간 관광객 규모는 300~10,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토사시 우사어협의 관광객 규모가 연간 3천명으로 가장 많다.

토사시 (土佐市)의 우사어협(宇佐漁業)을 살펴보면, 우사어협은 토사시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수산물은 가 다랑어이다..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업소득의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어한기(漁閑期)인 여름철에 관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어협 소속 어업인들 중 10여명이 USA Whale Watching 협회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한다. 우사어협의 관광에 참가하는 관광객은 연간 약 3천명이며, 월별 분포는 하계휴가철인 8월에 가장 집중되고 황금연휴가 있는 5월도 다른 달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관광프로그램의 이용요금은 성인 5천 엔, 초등학생 3.5천 엔, 유아 2천 엔이며, 관찰 시간은 총4시간 정도이다. 이들이 고래와 조유할 경우는 약 80%로 높은 편이다. 조우에 실패할 경우 1천 엔 상당의 쿠폰을 준다.

(6) 일본 고치현 무로토시(室戸市) 돌고래 센터

무로토시의 돌고래센터는 과거 포경업을 영위하던 지역 이미지와 유희 어항시설을 활용하여 조성된 돌고래 체험시설이며, 돌고래 치료 요법을 연구하는 대학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돌고래센터는 무로토시 어항의 안벽과 방파제 등을 이용하여 조성되었다. 어항의 유희시설을 이용할 경우 어항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체험공간을 정온수역으로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를 절약하여 사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이 시설은 카나가와현 아자부 대학에서 장애아를 위한 돌고래 치료요법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현재는 지역주민과 어업인이 주체가 된 NPO법인에서 승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돌고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상에는 돌고래가 휴식을 취하는 가두리 시설과 체험활동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육상에는 매표소, 탈의 및 샤워시설, 슈트 등 체험장비 보관창고, 교육공간으로 사용되는 천막 등이 갖춰져 있다.

이 무로토시는 기온이 온난하여 겨울에도 돌고래를 야외에서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수조를 마련할 필요가 없고, 겨울에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사육되고 있는 돌고래는 2마리이며, 체험프로그램의 진행 및 돌고래 사육을 위해 4명의 조련사를 두고 있다. 돌고래센터 체험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돌고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시설건

학, 돌고래터치, 트레이너 체험, 돌고래 수영 등 4가지가 있다. 돌고래와 수영하는 프로그램은 사전교육, 돌고래 터치, 트레이너 체험, 준비운동, 돌고래와 수영하기 순으로 진행 프로그램한편 트레이너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교육부터 트레이너체험까지, 돌고래 터치 프로그램은 사전교육부터 돌고래 터치까지 진행된다. 사전교육에는 돌고래에 관한 일반적인 생태교육, 돌고래 트레이닝 사인 교육, 수영 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트레이너체험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2천 엔, 돌고래수영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8천 엔으로 비용이 비싼 편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7) 호주 포트 스테판(Port Stephens)의 환경사업

호주는 고래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모든 연안에서 고래관찰이 가능하다. 호주가 고래관광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며, 1998년 고래관광 참여자 수는 7백만 명으로 세계 고래관광시장의 약 8%를 점유하였다. 이후 고래관광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당시 약 50개였던 관경업체 수는 현재 약 250개로 증가하였다. 그중 포트 스테판의 관경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항만 구역내도에서 돌고래관찰이 가능하며 한시간정도만 외해로 나아가면 혹등고래가 이동하는 해역에 닿을 수 있어 관경사업하기에 유리한 자연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 포트 스테판 관경사업의 특징은 포트 스테판 관경의 특징은 유람선, 요트, 고무보트 등 관경에 이용되는 선박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다. 유람선은 안락함과 바다수영 등을 함께 즐길 수 있고, 요트는 요팅과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으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방문자는 마리나 내에 위치한 티켓 판매처에서 자신이 원하는 관경선박의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관경선 계류는 벨슨베이에 위치하고 있는 마리나 시설 중 일부를 이용하고 있으며, 월 계류비는 한 척당 약 \$1,400이다.

관경업체(Imagine Cruise)의 관경상품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관경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와 같다. 돌고래 관찰은 항내에 서식하는 돌고래를 관찰하는 것으로 연중 가능하며 혹등고래를 관찰할 수 없는 시기에 실시하고 있다. 돌고래와 고래 관찰 프로그램은 고래관찰에 대한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만일 고래를 만나지 못할 경우 다음에 무료로 승선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고래관찰 프로그램은 출항 전 안전교육과 관경 프로그램 진행방식에 대한 안내로 시작된다. 혹등고래를 관찰하는 해역으로 이동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되

며 그 시간 동안 고래관련 서적 혹은 고래모형을 통한 교육을 받을 수 이후 고래를 찾고 관찰하는데 1시간,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데에 1시간 등 환경프로그램은 총 3시간이 소요된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2.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추이

본 연구의 논제로 제시된 고래관광은 국제 관광객의 유인력을 높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생태관광자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관광형태로 부상하고 있다(Muloin, S. H. 1998). 특히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고래의 포획이 금지되면서 고래를 활용한 관광 상품개발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과제로서, 이제는 먹는 고래관광이 아닌 보존,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세계의 고래관광현황을 개괄해보면, 1998년 87개국에서 9백만 명 이상이 고래 관광을 실시하였으며, 최소한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다고 국제 동물복지기금(IFAW)이 'Whale Watching 2001'에 발표하였다(세계관광기구, 2006). 고래생태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위 5개국 현황을 보면, 2001년 미국의 고래관광객 수는 400만 명으로 가장 많고, 호주가 70만 명, 남아프리카가 51만 명, 뉴질랜드 23만 명, 아일랜드 17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10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한국이 가장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일본의 고래관광 현황을 살펴보면, 1988년 오가사와라 지역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관광을 시작한 이래 현재는 전국적으로 10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일본정부차원에서는 별도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되고 있어, 한국의 고래관광개발의 장기적인 지표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정부는 돌고래리서치센터(ICERC)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고래를 통한 환경교육, 가이드 지원 사업 등의 홍보지원 사업들을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래체험시설, 해양테마파크, 고래박물관 및 환경선박 등의 하드웨어시설들이 전반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특히 보스턴 시에서는 환경선박 탑승객이 연간 1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1960년대 고래관광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고래관광업체가 약250개, 연간 700만 명이 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등의 국가도 고래관광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고래관광 하드웨어 발전 형태와 사업들은 향후 한국 고래관광의 지역개발사업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호주 포트스테판의 경우는 돌고래 수도(Dolphin Capital of Australia)로서 관광사업이 크게 발달하였을 뿐 아니라(Donlea, 1996),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도 돌고래 자원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의 테마파크와 관광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 환경교육, 생태교육을 한다. 또한 입장객의 제한관리와 편의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만족도를 부여함으로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화를 기하고 있어, 한국형 고래관광모델정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뉴 베드 포드 국립공원의 경우, 과거의 포경업 관련 형태의 유적을 그대로 보존관리하고 ‘고래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여 연간 38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2005). 특히 하드웨어 시설로서 물리적 개발 없이도 과거의 태의자료서 건축물 등을 고래특구 지역의 관광개발 사업을 발달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울산의 경우 고래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해 장생포항 일원이 164만㎡의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에 2009부터 2014년까지 158억 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14개 단위의 고래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어 울산 고래관광의 국제화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울산을 비롯한 한국의 고래관광 특성은 고래를 수족관에서 보는 일부 국가와 달리, 바다에서 직접 관찰하는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고래관광활동이 가능하여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한국형 고래관광 모형정립이 가능하다는 차원 뿐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 및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3.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과제와 전망

최근 들어 국내 관광 시장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 핵가족 시대에 편승한 주 5일 근무로 가족과 개인 관광이 많아지면서 생태관광과 체험관광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환경문제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 친화적인 생태관광이나 녹색관광이 관광목적지 활성화의 중요

매력인자로 각광 받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이태희, 2002). 정부에서는 매년 지역별 방문의해를 정하여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 별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생태관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래관광이 지속적인 관광이 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업적 측면의 수익적인 측면의 가능성이다. 고래관광은 고래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바다로 가서 고래를 구경하는 관광이 중심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 가장 첫 번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고래와의 조우 비율이다. 관광을 위해 항상 고래를 발견 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고래의 출현은 30-50% 정도이다. 이럴 경우의 고객 만족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고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일회에 한해서 기회를 더 주면서, 고래 박물관 견학을 무료로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은 상품 가격의 50%를 환불해주는 방식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잦아지면 고객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출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울산에서의 관광의 경우, 관광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헬리콥터를 통한 사전 고래 출현지를 물색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어군 탐지기를 활용하거나, 사전 전망대 배를 띄워 위치를 파악한 후 고객을 승선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관광 상품의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아울러 해결해야할 두 번째 과제는 계절성 상품에 대한 문제이다. 년 중 고래 출현은 5월에서 10월경에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2008). 이러한 현실에서 년 중 6개월은 경영상의 수익이 없어진다는 결론이다. 고래관광을 사업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외국 일본의 경우에는 비수기에는 주된 사업인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성수기에 관광선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실정이다. 성수기가 여름이라서 여름 휴가철의 수요가 많아서 연계된 관광 상품 해수욕장 등과의 연계도 모색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역의 고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관광 상품으로서의 고객관광은 단순한 관광차원의 프로그램이면서 계절성 상품이기에 체류형의 관광 상품화로의 마케팅적 경영

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래관광 전문가가 아직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현실이다.

네 번째의 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고래관광의 정체성의 문제이다. 최근까지 국내 고래관광 상품이라고 하면, 울산 고래축제를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울산 고래축제는 고래 음식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축제 때 고래 고기를 제대로 먹어보기 위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올해 15회를 맞는 울산 고래 축제는 ‘신화속의 울산고래, 부활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고래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를 문화와 예술로 승화시켜 축제의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2009년 행사 세부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공식 프로그램으로 고천대, 거리퍼레이드, 개막식 및 축하공연, 장생포 풍경제, 고래가요제이며, 공연프로그램으로는 전통 민속 놀이마당, 해외초청공연, 고래테마 퓨전 한마당, 해경 관현악단공연, 고래라이브 공연, 재미난 거리아트 퍼포먼스이다. 상설참여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고래얼음조각대회, 고래배 경주대회 및 체험, 바다 그림 그리기 대회, 점토로 고래만들기 대회, 돌고래보트 운항, 고래 스토리텔링 시범, 퍼레이드 물 만들기 시범, 선사 뗏목체험, 선사 고래배 만들기 체험, 고래요리 맛 자랑, 장생포 고래상인협회 주관 고래 고기 야외 맛 집과 고래 테마놀이 마당해경 등이다. 연계프로그램으로는 고래의 날 제정, 고래바다 울산선언, 해군 함정, 해안 경비정 공개, 승선 체험, 쫓불 고래 시 낭독의 밤, 국제 고래관련 심포지움이다. 특별프로젝트로는 선사고래잡이 재연, 선사체험마을, 고래주제 전시관, 빗해경 관현고래마을, 마당극 춤추는 고래마을 장생초가 있다. 그 외 특별행사로 고래 테즈락 400명 승선의 전문유람선이 상시 출항한다. 아직도 고래를 먹는 중심의 축제로 운영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환경선 출항과 고래의 날 제정 등 생태관광으로서의 고래 축제로 전환 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울산시, 2008).

울산시가 국내 고래관광의 선두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 초기부터 정체성 살리기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 공업도시가 아닌 생태관광 자연도시로서의 면모와 함께 지속적인 고래관광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발전 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의 과제는 어민들과의 바다 이용에 관한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울산의 경우 환경선을 초기로 시도하기에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바다의 어류를 잡는 어부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수산업을 하는 지역 어민들을 참여 시켜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작 단계 이기에 장기적인 사업 전략 차원에서 고래관광에 대한 지역 어민과의 공감대를 사전에 충분히 형성하여 지역과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관광 상품으로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지역민의 만족도가 그 관광 상품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변우희, 2009).

고래관광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고래관광의 사업적인 수익 모델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 고래관광과 연안의 내륙 관광 상품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고래관광의 계절성과 고래 출현의 가능성을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울산의 고래관광과 동해안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해안 관광벨트 구축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고래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산의 고래관광과 경주 신라 천년고도의 관광과 연계하면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는 두 지역의 관광수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부산에서 일본 관광객이 부산을 관광하고, 울산에서 고래관광을 하고, 경주 관광을 하는 패키지 관광이 제시되면 더욱 매력 있는 관광 상품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울산의 고래관광을 경유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경유하는 해양관광 상품도 제시를 할 수 있다. 현재 독도는 국민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교통편의 한계성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독도가 천연 보호구역으로서 숙박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하면, 크루저를 통한 관광은 더욱 현실성이 있다고 민적인 인기를 울산에서 출발하여 양관광 관경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경유하여 경주에서 관광을 하고 울산으로 돌아오는 관광 상품도 제시 할 인 인기를 이는 외국에서 부산까지 오는 크루저와 연계하면, 더욱 효과적인 관광 상품이 될 것이다. 단순한 관경 차원의 고래관광으로는 지속적인 관광 상품으로 매력이 없다는 현실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안들이 받아들여 질 경우, 한국의 관광수지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제 4 절.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평가

1.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평가

관광개발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충분한 타당성 평가와 함께 개발 경과에 대한 단계별 시스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관광자원의 매력도를 바탕으로 상품개발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충분한 매력도(attractiveness) 측정과 적합성(fitness) 평가를 통하여 사전에 관광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정규엽, 1997). 고래관광개발도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개발은 해당 지역의 관광권역에 잠재해 있는 특화(specialization) 된 관광 자원을 유인요소로 하여 관광목적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변우희, 2000; Yagi & Mohammadian, 2008). 또한 고래관광 개발 역시 관광객의 관광활동 가능성을 촉진시키고 보다 높은 유인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목적지의 기반시설 정비뿐 아니라 지방 고유의 독특하고 차별화 된 유·무형 관광자원의 상품화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정재룡, 2008).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있어서도 선행 연구를 통해 분류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평가를 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이고, 기존의 연구와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다.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있어서 하드웨어들은 고래 관광의 시설 개발들이다. 고래를 형상화한 랜드마크와 환경을 위한 관광유람선의 개발 그리고 고래관광관련 체험시설과 고래를 주제로 한 아쿠아리움 건립 등이다. 또한 돌고래 훈련시설과 고래의 생태연구 및 고래마을 복원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고래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통로인 고래관광 안내정보시스템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래관광의 성공을 위하여 소프트적인 요소도 필요하다. 축제 활성화와 해외 고래관광지와의 교류 강화가 필요하다. 고래관련 역사와 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고래자원의 관광 코스화, 고래문화프로그램, 고래를 활용한 친환경 전략, 고래 음식문화 개발, 고래 생태체험도 중요하다.

또한 앞선 이론에도 언급했듯이, 고래관광개발계획 수립 시에 명심해야할 사항은 관광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의식이나 상품화 인식도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해당 관광목적지의 제반특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인식도가 상품화 과정에 반영됨

으로써 제약요소를 충분히 검토하는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 지역주민의
를 위해 본 연구욕구는 동해권역의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
로 하여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관광객의 관광공간이 지역민에게 삶의 터전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역관광
개발의 계획 및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을 관광수요자의 관점에서 평
가하는 작업과 같이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중시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관광 상품 개발에 있어서 수요자의 주체인 관광객의 입장을 고려하는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평가는 수요자입장에서의 지
역주민과 관광객의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은 중요한
관광 상품 개발의 성공을 의미한다(장병수·변우희, 2004).

다음으로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있어서 공급자 측면에 대한 평가이다.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관광개발 환경이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
지 못한 우리나라의 상황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지역관광개발에 관한
정책이 보다 실행 가능성이 높다.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정
책입안자나 관광전문가 그리고 지역관광개발 전문가들에게 고래관광 상품개
발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지역성을 대한 평가이다. 고래
관광개발이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지자체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
하며, 이들의 목적이나 사회적 특성이 불일치하고 이질적인 관광객, 개발과
정에서 협력보다 갈등과 충돌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
역관광개발방향은 통상 민간정부주도의 하위상달에 의한 지방자치체가 정착
화 될수록, 지역주민의 의사가 개발프로젝트 의사결정에 더욱 영향 관한 발휘
가 한정되고 극단적으로는 개발계획 자체를 무산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국, 지역관광목적지에서 관광객 욕구와 지역의 가치가 조화될 때 관광산
업과 지역문화가 병행하여 발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들의 관광수요자 입장에서 상품개발에 관한 인식도를 평가한다. 동해권 관광
개발에 있어서 각 지역에 맞는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위
해 각 지역별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변수와 각 지역의 상대적인 평가를 하여 보다 비교 우위 지역의
개발을 모색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 다원변량분석과 로짓 회귀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를 관광개발과정에 직접 반영시키는 과정들이 궁극적으로는 관
객의 수요 환기와 관광목적지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할 수 있다.

2. 퍼지이론에 의한 고래관광 상품개발 타당성평가

앞선 고래관광 상품개발 평가를 위해 실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동해권 각 지역들과의 분석이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정책적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각 지역별 타당도의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퍼지모형의 가치평가가 적절하다고 본다. 관광학 분야에도 최근 퍼지관련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그 유용성이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그 활용성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퍼지선형계획법을 통한 의사결정의 최적화 문제가 관광경영·개발의 의사결정 연구의 적용에 보편화 될 수 있고 역시 이 분야의 선행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퍼지집합 개념을 개발 프로젝트 퍼지선형부문에 적용한 연구들은 관광개발 계획 부문에서 주목해 볼 연구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타당성 평가 연구에 가능성 이론에 기초를 둔 퍼지 집합이론을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정량적 분석인 일반집합의 단순성 한계를 극복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배제됨으로써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는 정보가 다원론적인 퍼지집합의 언어적 변수 추론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내면적 요인분석이 가능해져 위험성 평가의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퍼지집합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이론은 퍼지이론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이론적 규명과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방법의 전제로 이미 산출된 언어적 평가계수를 퍼지집합으로 전환하여 퍼지메트릭스 시스템에 의한 맥스·민 합성(max·min composition) 원리를 적용하여 타당성 최소화의 기초자료를 도출하였다.

또한 퍼지화된 동해권의 실현가능성과 발생가능성의 언어적 평가계수가 최종 퍼지 함수 값을 산정하기 위해 퍼지확장원리(fuzzy extension principle)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요인별 체계도에 의해 유클리디안 거리법(Euclidean distance method)을 적용하여 각 위험요인의 수준을 평가하는 결과치를 산출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언어추론에 있어 기 연구(변우희, 1996)된 추론의 의사결정 단순성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근사추론에 의한 헤지 이론을 도입하여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으며 더욱 세밀하고 폭넓은 변수 추정을 위한 추가방법론으로써 인용되었다.

위험성 평가를 위한 측도로서 언어적 표현에 의한 퍼지집합은 결과 치를

응용할 수 있는 기준 측도로서 활용됨에 따라 퍼지관계(fuzzy relation)에 의한 합성의 연산이 평가과정에 적용되어지게 된다.

이러한 집합상의 규칙이 Zadeh의 확장원리(extension principle)에 의해 최종적인 퍼지집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로 인용되었다.

<식 1>에 제시된 퍼지관계의 최대·최소의 합성의 공식은 일반적으로 퍼지관계에 많이 쓰이는 연산으로 본 연구 분석과정에 그대로 적용 시켰다.

$${}_{TDWSS}(x, y) = \max_{y \in Y} \{m_{WTD}(x, y), m_{WSS}(y, z)\} \quad \text{<식 1>} \\ = \max_{y \in Y} \{ \min \{m_{WTD}(x, y), m_{WSS}(y, z)\} \}$$

계산과정과 최대·최소합성 규칙에 의해 퍼지결과 값을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의 과제인 동해안 고래관광타당성 평가 역시 하위요인의 실현가능성과 발생가능성이 각각 언어적 변수로 표현된다.

<표 3-2> 최대최소 합성규칙에 의한 퍼지메트릭스 연산

* $WTD = \{H \mid \mu_{WTD}(H) = 0 \mid 0.0, 1 \mid 0.2, 2 \mid 0.6, 3 \mid 1.0\}$
** $WSS = \{M \mid \mu_{WSS}(M) = 0 \mid 0.3, 1 \mid 1.0, 2 \mid 1.0, 3 \mid 0.3\}$
*** $WIE = \{L \mid \mu_{WIE}(L) = 0 \mid 1.0, 1 \mid 0.6, 2 \mid 0.2, 3 \mid 0.0\}$
$WTD \oplus WSS = [(H+M) \mid \max \{ \min \{ \mu_{WTD}(H), \mu_{WSS}(L) \}$
$\min = \{ (0+0) \mid 0, (0+1) \mid 0.2, (0+2) \mid 0.3, (0+3) \mid 0.3, (1+0) \mid 0.2, (1+1) \mid$
$0.2, (1+2) \mid 0.2, (1+3) \mid 0.2, (2+0) \mid 0.3, (2+1) \mid 0.6, (2+2) \mid 0.6, (2+3) \mid 0.3,$
$(3+0) \mid 0.3, (3+1) \mid 1.0, (3+2) \mid 1.0, (3+3) \mid 0.3 \}$
$\max = \{ 0 \mid 0, 1 \mid 0.2, 2 \mid 0.3, 3 \mid 1.0, 4 \mid 1.0, 5 \mid 1.0, 6 \mid 1.0 \}$
$WTD \otimes WIE = [(H \times L) \mid \max \{ \min \{ \mu_{WTD}(H), \mu_{WIE}(L) \}$
$\min = \{ (0 \times 0) \mid 0, (0 \times 1) \mid 0, (0 \times 2) \mid 0, (0 \times 3) \mid 0, (1 \times 0) \mid 0.2,$
$(1 \times 1) \mid 0.2, (1 \times 2) \mid 0.2, (1 \times 3) \mid 0.0, (2 \times 0) \mid 0.6, (2 \times 2) \mid 0.2,$
$(2 \times 3) \mid 0, (3 \times 0) \mid 1.0, (3 \times 1) \mid 0.6, (3 \times 2) \mid 0.2, (3 \times 3) \mid 0 \}$
$\max = \{ 0 \mid 1.0, 1 \mid 0.2, 2 \mid 0.6, 3 \mid 0.6, 4 \mid 0.2, 6 \mid 0.2, 9 \mid 0 \}$
$WSS \oslash WIE = [(M \div L) \mid \max \{ \min \{ \mu_{WSS}(M), \mu_{WIE}(L) \}$
$\max = \{ 0 \mid 0.3, 1 \mid 0.6, 2 \mid 0.6, 3 \mid 0.3 \}$

< 주: * WTD= 고래관광 프로그램 개발 타당도 ** WSS= 고래관광 안내체계 시스템 타당도
 *** WIE= 고래관광 인프라 구축 타당도

<표 3-2>의 연산은 만약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 요인이 WTD 일 때 언어적 표현은 H, 안내체계 시스템 요인 WSS는 M, 인프라

구축 요인 WIE은 L로 표현 될 때, 이러한 언어변수가 세 가지의 퍼지함수로 전환되면서 퍼지가법(fuzzy addition), 승법(Multiplication), 제법(Division)의 매트릭스 연산과정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퍼지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추론(approximation)의 과정이 확장원리에 적용됨으로서 복잡한 집합을 단순화 시켜 최종 결과 값의 산출을 용이하게 한다.

<식 2>은 맨다니의 합성원리와 자데가 제시한 확장원리를 응용한 식으로서 타당도 값인 S를 산출하기 위해 실현가능도와 발생 가능도에 관한 하부요인의 평가계수가 투입됨으로서 최종 퍼지집합 함수 값의 결과가 단순화 되면서

$$\sum_{[bf]} [af] \otimes [bf] \quad \text{<식 2>}$$

af:실현가능도, bf:발생가능도

의사결정의 추론이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의미는 하부요인에 의한 평가의 가치가 상위요인에 직접 영향을 미쳐 요인별 단계적 평가가 가능해지고 각각의 타당요인에 의한 총체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표 3-3> 위험요인별 최종 퍼지집합 평가절차

$$\begin{aligned}
 & \frac{\{(af_{11}) \times (bf_{11})\} + \{(af_{12}) \times (bf_{12})\} + \{(af_{13}) \times (bf_{13})\}}{\{(bf_{11}) + (bf_{12}) + (bf_{13})\}} \\
 = & \frac{\{(L \times L) + (H \times H)\} + (H \times H)}{(L + H) + H} \\
 S_2 = & \frac{\{(af_{21}) \times (bf_{21})\} + \{(af_{22}) \times (bf_{22})\}}{\{(bf_{21}) + (bf_{22})\}} \\
 = & \frac{(M \times H) + (M \times M)(H + M)}{(M \times H) + (M \times M)(H + M)} \\
 S_3 = & \frac{\{(af_{31}) \times (bf_{31})\} + \{(af_{32}) \times (bf_{32})\}}{\{(bf_{31}) + (bf_{32})\}} \\
 = & \frac{(M \times M) + (L \times L)(M + L)}{(M \times M) + (L \times L)(M + L)}
 \end{aligned}$$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틀은 평가계수 산정에 제시되어진 각 하부요인별 실현가능도와 발생가능도의 언어적 표현에 의한 퍼지집합이 <표3-2>의 퍼지 합성연산과 <식2>의 확장원리의 방정식에 의하여 요인별 최종 퍼지집합의 평가절차가 <표 3-3>에 의해 분석되어 진다.

<식 3>에서와 같이 유클리디안 거리가 가장 작은 값을 언어적 추론에 의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값으로 채택하게 된다.

$$d(S, X) = \left\{ \sum_{i=1}^n [S(i) - X(i)]^2 \right\}^{1/2} \text{-----<식 3>}$$

따라서 이러한 타당성평가의 과정은 불확실한 고래관광상품 개발의 총체적인 환경 뿐 아니라 지역의 관광개발이나 개별적 개발 프로젝트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측 치로써 기존의 정량화 모델의 이치적 논리에 의한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더욱 확보 할 수 있는 것이다.

제 4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자료수집 절차

1. 자료수집과 연구대상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동해권으로 한정하였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방향성으로 보면,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으로 불려진다. 본 연구에서의 동해권은 한반도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한 동쪽의 해안을 통칭하여 범위를 정하였다. 동해안 해안 4개 지역 부산의 해안지역인 기장군, 해운대구, 남구 지역으로 해서 부산 해안권과 울산의 해안 지역인 북구, 동구,

남구 지역으로 해서 울산 해안권 그리고 경주의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지역으로 해서 경주 해안권, 포항은 남구와 북구지역으로 해서 포항 해안권으로 나누어 연구대상 범위로 선정하였다. 이 지역을 연구 대상 표본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있는 해양관광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고래가 연중 가장 많이 출몰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해안이라는 표본의 대표성과 해안지역 주민의 동질성을 내재하고 있어 모집단의 의사 결정 추론에 용이하다. 포항과 경주, 울산 해안 지역은 최대 고래관광 공급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부산과 울산은 고래관광 수요시장으로서 고래 관광 상품 개발의 타당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지역관광개발이 하드웨어적인 대규모 관광개발 패턴에서 녹색관광, 생태관광 등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점진적 소규모 대안 관광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해안 해안지역은 해양생태관광의 표본추출 대상지역으로서의 그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1개월간 지속적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은 고래 관광 상품 개발의 수요자 입장인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다. 또한 고래 관광 상품 개발의 공급자 입장인 지자체 관광개발 담당자와 관광개발 전문가 그리고 관광종사자들에게도 설문을 하였다.

본 설문의 단위 지역별 자료배분 비율은 인구비례할당추출법에 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구체적 조사방법으로는 잘 훈련시킨 조사원을 활용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우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공급자들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와 지역의 교수 그리고 관광 전문가들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설문을 하였다.

조사원은 경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3학년 학생 50명을 선정하여 사전 관광 통계학 수업을 통해 충분히 표본추출방법을 학습한 상태이다. 조사범위는 부산해안지역, 울산해안지역, 경주해안지역, 포항해안지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받았다. 이는 지역별로 상대적 평가를 하여 보다 정책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 4-1> 표본의 개요

연구대상 및 표본단위	동해권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조사범위	동해권 해안 지역인 부산해안, 울산해안, 경주해안, 포항해안
조사기간	2008년 9월 ~ 2009년 8월
자료수집	설문지 배포:1810부 회수된 설문지분석사용:1510부
자료표본	총 1,510부, 부산지역 421, 울산지역408, 경주지역319, 포항 362

제 2 절 설문지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로 이용된 설문지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이론을 근거로 구성되었다. 선행이론들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프트경쟁력 강화 방안(강신겸·강현주, 1999)의 관광의 관광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과 울산관광고래테마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사업에 대한 연구 그리고 관광 전문가들의 관광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고래관광 전문가들의 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변수를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3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동해권 고래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소프트웨어 변수로 고래문화관광 축제 활성화, 고래관광 외국과의 교류 촉진, 고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 고래자원의 관광 코스화, 고래관광 브랜드 개발, 고래관광 문화 프로그램 강화, 고래 친환경 전략, 고래관광지의 홍보 기능 강화, 고래 관광지의 홍보 기능 강화, 고래 생태체험 관광 강화, 고래 음식 문화 개발 등 10개 변수를 설정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둘째, 동해권 고래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하드웨어 변수로 고래 랜드마크, 고래 관광 유람선개발, 고래관광 체험시설, 고래 주제 아쿠아리움 건립, 고래 관광의 돌고래 훈련시설 정비, 고래 관광 지역안내 정보 시스템 정비, 고래 관광객의 편의 기반 시설, 고래 생태연구기관 확충, 고래 생태 박물관 및 전시관 조성, 고래 마을 복원 등 10개 변수를 설정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거주지, 대상구분, 성별, 연령, 결혼여부,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2> 설문지 구성

조사항목	구체적인 내역	선행 연구
고래관광 상품개발 소프트웨어	1.고래문화관광 축제 활성화 2.고래관광 외국과의 교류 촉진 3.고래 역사와 문화 스토리 텔링 4.고래자원 관광 코스화 5.고래 관광 브랜드 개발 6.고래관광 문화 프로그램 강화 7.고래 친환경 전략 8.고래관광지의 홍보 기능 강화 9.고래 생태체험 관광 강화 10.고래 음식 문화 개발	1. 강신겸.강현주(1999), 2. 울산시(2008), 3. 박행구.김농오.김지인(2008).
고래관광 상품개발 하드웨어	1. 고래 랜드마크 2. 고래 관광 유람선개발 3. 고래관광 체험시설 4. 고래 주제 아쿠아리움 건립 5. 고래 관광의 돌고래 훈련시설 정비 6. 고래 관광 지역안내 정보 시스템 정비 7. 고래 관광객의 편의 기반 시설 8. 고래 생태연구기관 확충 9. 고래 생태 박물관 및 전시관 조성 10. 고래 마을 복원	4. 김형미(2007). 5. SooCheong (Shawn) Jang Liping A. Cai. (2002)
인구통계학적 특성	1. 거주지 2. 대상구분 3. 성별 4. 연령	5. 결혼 6. 소득수준 7. 교육수준 8. 거주기간

제 3 절 분석방법 및 단계

본 연구의 주 방향성은 제시한 바와 같이 동해안 지역을 4개의 세부단위별로 분류한 후 각 단위지역의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대한 측정변수들에 인식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는 데에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변수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고래관광이라는 새로운 대안적 생태관광의 지역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에 의한 분석절차과정을 설계하게 되었다. 첫째

수집된 설문조사의 표본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민의 인식도 평가 변수인 10개의 고래관광 상품개발 소프트웨어 변수와 10개의 고래관광 상품개발 하드웨어 변수들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베리막스(varimax)법을 적용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지역별 각각 인식도 측정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았으며 평가에 적용된 척도는 비교의 비율 성을 높이기 위해 7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둘째 이렇게 산출된 소프트웨어 상품개발요인과 하드웨어 상품개발 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투입변수를 단위지역으로 하여 세부적인 각각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원변량분석(MANOVA)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분석의 특징인 지역별 요인별 상호 평균비교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해 준다. 셋째, 울산지역 주민들의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요인들이 각 해당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위해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첫째, 고래관광 대상지역 및 표본의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둘째,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Varimax법을 적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지역별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셋째, 소프트웨어 상품개발요인과 하드웨어 상품개발 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투입변수를 단위지역으로 하여 세부적인 각각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원변량분석(MANOVA)을 적용하였다.

넷째,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요인들이 각 해당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위해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고래관광 상품개발 타당도를 위해 퍼지모형 가치평가를 활용하였다. 퍼지모형을 적용하여 실현가능도 요인과 발생 가능도의 평가 계수를 가지고 언어계수를 측정하여 하부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타당도 수준 평가를 하여 고래관광 상품개발 정책수립에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 5 장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타당성 평가

제 1 절 표본의 특성

각 항목별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추출된 표본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구성비는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 소득수준, 교육수준, 대상구분, 방문목적, 거주지 등 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석 자료에 이용된 1,510부에 대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설문에 앞서 지역적인 설문지의 배분은 동해안 4개 해안지역인 부산 해안권, 울산 해안권, 경주 해안권, 포항 해안권으로 나누어 지역의 인구비례에 근거 하였다. 설문을 정리한 결과, 부산지역은 421부로 가장 많았고, 울산지역은 408부, 경주지역은 319부, 포항지역은 362부로 나타나 사전에 계획한 인구비례의 기준에 근접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737명(48.8%), 여자가 773명(51.2%)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연령층으로는 40대가 567명(3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가 447명(29.0%), 50대가 182명(13.0%), 60세 이상이 117명(8.1%), 20대가 197명(1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분포는 지역개발에 가장 관심이 많고,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3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설문을 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남녀의 비율은 비교적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여 설문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보여진다. 결혼 여부도 결혼이 1,154명(76.4%)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18%), 미혼이 84명(5.5%)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1,053명(69.7%)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 432명(28.6%), 대졸이상이 254명(16.8%)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역의 해안을 중심으로 설문을 하였기에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전체적으로 학력이 대졸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201~300만원이 703명(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301~400만원 미만이 496명(32.8%), 400만원 이상이 185명(12.25%), 100~200만원 미만이 126명(8.3%)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은 설문지역이 어촌지역과 중소도시의 변두리 해안지역이기 때문이다. 본 설문에 있어서 지역별로 지역관광의 공급자측면과 수요자측면으로 나누어 설문을 받았다. 공급자측면은 지자체공무원과 관광개발 관계자

와 지역주민이 대상으로 585명(38%)이었다. 수요자 측면은 지역 해안에 온 관광객이나 지역이외의 외지인 925명(61%)으로 지역 관광 개발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본 논제에서 수요자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의 고래관광 상품의 타당성을 평가해보기 위함이다.

<표5-1> 고래관광 대상단위지역 및 표본의 특성 분포

인구통계변수 \ 평가요인	총계 (n=1510)	부산(R1) (n=421)	울산(R2) (n=408)	경주(R3) (n=319)	포항(R4) (n=362)
(성별)					
남 자		203(48.2%)	197(48.3)	152(47.6)	185(51.1)
여 자		218(51.8%)	211(51.7)	167(52.4)	177(48.9)
(연 령)					
20대이상		53(12.6%)	55(13.5)	42(13.2)	47(13.0)
30대이상		125(29.7)	123(30.1)	91(28.5)	108(29.8)
40대이상		157(37.3)	153(37.5)	121(37.9)	136(37.6)
50대이상		52(12.4)	47(11.5)	39(12.2)	44(12.2)
60대이상		34 (8.1)	30(7.4)	26(8.2)	27(7.5)
(결혼여부)					
미 혼		12(2.9%)	12(2.9)	35(11.0)	25(6.9)
결 혼		330(78.4)	321(78.7)	229(71.8)	274(75.7)
기 타		79(18.8)	75(18.4)	55(17.2)	63(17.4)
(소득수준)					
100-200만원		35(8.3%)	33(8.1)	27(8.5)	31(8.6)
201-300만원		197(46.8)	193(47.3)	147(46.1)	166(45.9)
301-400만원		138(32.8)	132(32.4)	106(33.2)	120(33.1)
400만원이상		51(12.1)	50(12.3)	39(12.2)	45(12.4)
(교육수준)					
고졸이하		229(54.4%)	221(54.2)	172(53.9)	202(55.8)
대 졸		120(28.5)	117(28.7)	92(28.8)	103(28.5)
대졸이상		72(17.1)	70(17.2)	55(17.2)	57(15.7)
(대상구분)					
공급자측면		165(39.2%)	155(38.0)	128(40.1)	137(37.8)
이용자측면		256(60.8)	253(62.0)	191(59.9)	225(62.2)

제 2 절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1. 소프트웨어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동해안 고래관광 상품개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10개의 인식도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의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추출된 특성요인 전체 10개 변수의 총 분산 설명율이 42.572%로 매우 높게 판명되었다. 각 요인별 고유 값은 관광환경강화 요인이 4.257이고, 고래자원 활성화 요인이 1.855이고, 역사교류강화요인이 1.313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값은 관광문화콘텐츠강화요인이($\alpha=0.881$)이고, 고래관광상품활성화 요인이 ($\alpha=0.604$)이고, 역사스토리텔링국제화요인이($\alpha=0.632$)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데이터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생태체험관광강화’, 및 ‘관광브랜드개발’ ‘친환경전략’ 등 6가지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환경 측면에 관한 내용구성을 하고 있어 ‘관광문화콘텐츠강화요인’(F1)으로 명명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표5-2>의 소프트웨어 인식도 측정변수에 의한 각 요인별 명칭은 ‘고래관광상품활성화’(F2), ‘역사스토리텔링국제화’(F3)의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추가적으로 제시된 평균값은 표본에 의한 모집단의 예측을 위한 중요도 지표로서 고래관광개발 의사결정의 우선순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요인분석에 의하여 축약된 데이터 정보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적 고래관광 상품개발 변수 가운데에 ‘생태체험관광강화(6.28)’가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 수익성이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며 표본인 지역민의 특성을 반영한 값으로 평가된다. 역시 ‘관광홍보기능강화(5.74: 2위)’, ‘관광브랜드 개발(5.68: 3위)’ 등의 변수들이 높은 값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고래관광을 위해서는 기반구축이 필요함을 동해안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문화프로그램강화(2.95), 음식문화개발(3.97) 등은 실제로 중요한 변수들이 아직도 그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강화’은 녹색관광, 생태관광의 추세에 비취볼때 체험과 환경을 통한 고래관광 개발이 중요함에도 인식하는 데는 아직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특히 고래축제활성화(3.89)는 울산시의 고래축제가 지속적으로 실행되는데 기인하여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고래축제의 음식축제의 한계성을 벗어나 생태 고래관광 축제의 이미지를 심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향후 지속적인 축제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표 5-2>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소프트웨어 신뢰도와 타당도분석

요인 명	요인 변수	요인적재량	평균(중요도)
Factor 1 관광문화콘텐츠강화 ($\alpha = 0.881 : 42.572\%$) (74.253) 고유 값: 4.257	생태체험관광강화	.899	6.28
	관광브랜드개발	.883	5.68
	친환경전략	.755	5.50
	관광홍보기능강화	.726	5.74
	문화프로그램강화	.723	2.95
	음식문화개발	.590	3.97
F actor 2 고래관광상품활성화 ($\alpha = 0.604 : 18.552\%$) 고유 값: 1.855	고래축제활성화	.832	3.89
	고래자원관광코스활성화	.743	3.53
Factor 3 역사스토리텔링국제화 ($\alpha = .632 : 13.129\%$) 고유 값: 1.313	고래역사스토리텔링	.850	4.68
	외국과의 교류촉진	.671	5.40

2. 하드웨어 신뢰도와 타당도분석

울산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하드웨어적인 인식도에 관한 10개 측정변수를 요인분석 한 결과, <표5-3>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의 총 분산설명력이 27.44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신뢰도 값은 요인1($\alpha=.627$), 요인2($\alpha=.660$), 요인3($\alpha=.753$), 요인4($\alpha=.650$)로 분석에 적용하는 데에는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분류에 인식도 측정변수의 특징을 보면, 주로 고래관광 시스템 변수로 구성되어 있어 ‘관광안내시스템정비’(F1)으로 명명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각 요인을 ‘관광시설정비’(F2), ‘생태관광시설강화’(F3), ‘관광편의시설강화’(F4)로 각 요인이 명명되었다.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하드웨어변수들의 중요도 평가에서 “생태 박물관 및 전시관 조성” 변수가 6.02로 1위, “관광 유람선 개발” 변수가 5.85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값을 활용하여 현재 동해안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고래관광테마파크 사업프로젝트의 정책 및 투

자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고래마을 복원” 5.46(3위), “관광객편의시설정비” 5.43(4위), “아쿠아리움 건립 ” 5.23(5위)를 기록하고 있어, 동해안 고래관광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래관광의 정체성확보를 위한 부분들에 대한 시설 건립에 상품개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5-3〉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하드웨어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요인 명	요인 변수	요인적재량	평균(중요도)
Factor 1 관광안내정보시스템 ($\alpha = .627$: 27.441%) (74.731) 고유 값: 2.744	관광지역 안내시스템정비 돌고래 훈련시설	.832 .316	5.06 3.87
F actor 2 관광시설정비 ($\alpha = .660$: 22.668%) 고유 값: 2.267	고래마을 복원 관광체험시설 생태박물관 및 전시관 조성	.813 .627 .624	5.46 4.41 6.02
Factor 3 생태관광시설강화 ($\alpha = 0.753$: 13.406%) 고유 값: 1.341	생태연구기관 확충 아쿠아리움 건립	.321 .859	3.38 5.23
Factor 4 관광편의시설강화 ($\alpha = .650$: 11.216%) 고유 값: 1.122	관광 유람선 개발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	.665 .649	5.85 5.43

그러나 “관광체험시설” 4.41 과 “돌고래 훈련시설” 과 같은 하드웨어 시설에는 별다른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직 외국의 고래관광 선진국에 비해 동해안 지역의 인식도가 낮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한국최초로 시도하는 고래관광 모델정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평가로 인식되어야 할 결과이다.

제 3절 고래관광 상품개발 인식도 평가

1. 소프트웨어 요인의 단위지역과 거주년도 간 차이검정

동해안 지역 고래관광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상품개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표5-2>와 <표5-3>와 같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표 5-4>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 단위로 세분화한 각 단위지역에 대해 기 산정된 4개의 소프트웨어 요인을 다면적 차원에서 평균의 차이를 검정함으로써 매우 정밀한 분석결과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여기에 적용된 다 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은 투입변수인 4개의 세부단위 지역에 따른 3개의 종속 변수를 추가하여 상호 통합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ANOVA 분석에서는 종속변인이 하나의 평균값으로 제시되지만 MANOVA에서는 평균들의 집합인 벡터(vector)를 사용하여 다면비교가 가능할 뿐 아니라 공분산분석도 가능하여 응용의 폭이 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결합분포를 가정하고 종속변수들은 각 집단에서 동일한 분산-공분산행렬을 가지며 다 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이룬다. 따라서 <표5-4>의 분석결과를 보면, 소프트웨어 상품개발의 인식도에서 우

<표 5-4 > 소프트웨어 요인의 단위지역/거주년도 간 차이검정(MANOVA)

소프트웨어요인	관광문화콘텐츠강화(SF1)	고래관광상품활성화(SF2)	역사스토리텔링국제화(SF3)
(단위 지역)			
부산 해안권(1)	3.61	4.63	4.94
울산 해안권(2)	3.40	5.27	6.12
경주 해안권(3)	4.45	3.72	3.97
포항 해안권(4)	4.34	3.63	3.14
사후검정 (scheffe)	1)2 3)2 4)2	1)2)3 ,2)4	1)2)4 3)2
F 값	133.736	46.725	91.819
MANOVA: Wilks Lamda	.021	F값 = 159.363	P= .000
(거주년도)			
1 - 5년	4.28	4.38	4.29
6 - 10년	4.31	4.46	4.27
11 - 15년	4.28	4.37	4.39
16년 이상	4.29	4.50	4.36
F 값	2.734	1.738	.823
MANOVA: Wilks Lamda	.954	F값 = 1.882	P= .004

선 ‘관광문화콘텐츠강화요인(SF1)’을 비롯한 3개 요인들이 종속변수로 선정되어 세부지역별 다 변량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울산 해안 지역”의 평균 가중치가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균값에서는 4.19을 기록하여 동해안 지역별로 ‘관광문화콘텐츠강화(SF1)’요인이 가장 낮은 가중치를 기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래 관광상품 활성화(SF2)’요인의 값이 4.77를 기록하고 있어 평균가중치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동해안의 세부 단위지역별로 보면, 부산 해안권은 역사스토리텔링국제화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고래관광 상품 활성화 요인 순서로 나타났다. 울산 해안권은 역사스토리텔링국제화요인이 가장 높고, 고래관광 상품 활성화 요인과 관광문화콘텐츠강화 요인이 뒤를 이었다. 이는 울산지역이 진행하고 있는 고래관광개발에 있어서 고래역사 스토리텔링과 외국과의 교류 촉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 해안권은 관광문화콘텐츠강화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포항지역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고래관광의 관심도를 알 수 있다.

<표5-4>에 제시된 사후 검정(scheffe’s test)을 통하여 드러난 지역별 편차의 유의성도 사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 종속변수들에 대한 세부 단위지역별 평균의 차이도 같은 분석절차를 통해 검정과 비교평가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거주년도의 경우도 단위지역별 분산결과 값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고래관광 상품 활성화(SF2)’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다.

2. 하드웨어 요인의 단위지역과 거주년도 간 차이검정

<표5-5>의 하드웨어적 상품개발의 인식도 평가에서 우선 ‘관광안내정보시스템요인(HF1)’을 비롯한 3개 요인들이 종속변수로 선정되어 세부지역별 다 변량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울산 해안권의 관광시설정보 요인의 평균 가중치가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울산 해안지역이 고래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고래관광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설문에서 보다 관심을 대상이 되었다. 이어서 포항 해안권, 경주 해안권, 부산 해안권 순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포항 해안권의 경우는 포항시 구룡포의 다무포 지역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고래가 출현한 지역으로 포항시 차원에서 고래 관광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 및 관련 시설을 건립 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 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균값에서는 4.19을 기록하여 동해안 지역별로 ‘관광시설정비(HF2)’요인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래관광 개발을 위해서는 다른 관광 개발과 달리 고증을 통한 새로운 관련 시설 정비가 선행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생태시설강화(HF3)’요인이 4.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5 > 하드웨어 요인의 단위지역/거주년도 간 차이검정(MANOVA)

하드웨어요인	관광안내정비시스템(HF1)	관광시설정비(HF2)	생태관광시설강화(HF3)	관광편의시설강화(HF4)
(단위지역)				
부산해안권(1)	5.26	5.84	4.72	5.36
울산해안권(2)	5.62	6.24	4.80	5.91
경주해안권(3)	5.43	5.70	4.62	5.67
포항해안권(4)	5.81	4.67	4.35	5.45
사후검정 (scheffe)	2>1, 3>1 4>1 2>3	1>3, 3>4 3>2	1>2,3 1>4,2>3	2>1,3,4 1>4,4>3
F 값	18.654	123.242	34.974	45.195
MANOVA: Wilks Lamda	.142	F값 = 59.691	P= .000	
(거주년도)				
1 - 5년	5.45	5.61	4.48	5.62
6 - 10년	5.37	5.66	4.55	5.63
11-15년	5.43	5.63	4.44	5.67
16년 이상	5.46	5.58	4.47	5.68
F 값	1.464	.489	1.037	.434
MANOVA: Wilks Lamda	.975	F값 = 1.867	P= .004	

그 이유는 자연 생태관광이 기본적으로 가능할 때, 고래관광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동해안의 세부 단위 지역별로 하드웨어 변수의 중요도를 보면, 부산 해안권은 관광시설 정비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광편의시설 강화 요인 순서로 나타났다. 울산 해안권도 관광시설정비가 가장 높고, 관광편의 시설 요인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경주 해안권도 관광시설정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광편의시설이 나타났다. 포항 해안권은 고래관광안내시스템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광 편의 시설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하드웨어 요인 중 관광시설정비 요인이 대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요인의 하부 변수를 살펴보면, 고래마을 복원과 관광 체험시설 그리고 생태박물관 및 전시관 조성으로 이들은 고래관광 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표5-5>에 제시된 사후 검정(scheffe's test)을 통하여 드러난 지역별 편차의 유의성도 사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 종속변수들에 대한 세부 단위지역별 평균의 차이도 같은 분석절차를 통해 검정과 비교평가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관광시설정비 요인은 울산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 해안권, 경주 해안권, 포항 해안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년도의 경우도 관광 단위지역별 분산결과 값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관광편의시설 강화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주년도에 상관없이 지역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3. 소프트웨어 요인 영향도 평가

<표5-2>와 <표5-3>에서 살펴본 동해안 4개 해안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대한 인식도 평가를 기초로 하여 분석의 최종단계로서 각 단위지역을 종속변수로 하여 고래관광 개발이 인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인 영향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투입변수로서는 당연히 각각의 3개의 소프트웨어 요인과 4개의 하드웨어 요인이 독립변수로 선정되었다. 각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적용한 관계로 자동적으로 처치되었다. <표5-6>에 제시된

<표5-6> 고래관광 소프트웨어 상품개발요인의 단위지역 영향도 평가(로짓회귀분석)

(요인/지역)	부산해안권(R1) (n=421)	울산해안권(R2) (n=408)	경주해안권(R3) (n=319)	포항해안권(R4) (n=362)
SF1	1.598 ^(c)	.889 ^(c)	2.354 ^(c)	25.994
SF2	.890 ^(c)	2.432 ^(c)	3.432 ^(c)	19.597
SF3	2.42	.254	1.683 ^(c)	17.285
Constant	-38.428 ^(c)	23.716 ^(c)	-8.534 ^(b)	-88.611
-2Log likelihood	509.881	779.268	750.478	279.619
Chi-Square	443.756	368.757	523.661	564.297
Pseude R-square	.298 ^(c)	.268 ^(c)	.416 ^(c)	.448 ^(c)

$Logit(\text{울산해안권}(R2)\text{소프트웨어 상품개발 정도}) = 23.716 - .889(\text{관광환경강화}) - 2.432(\text{고래자원활성화}) + 2.54(\text{고래역사교류 강화})$

주) *: 0.01 < p (a) < 0.05, **: 0.01 < p (b) < 0.01, ***: p (c) < 0.001

바와 같이 부합도(goodness-of-fits)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단위지역 가운데에 3곳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요인에 의한 영향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 지역은 영향도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 값은 <표5-4>의 타 지역과 비교한 지역별

가중치와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표5-6>의 로짓회귀분석에 의한 소프트웨어 회귀계수의 상대적 중요도 값이 산출됨으로써 지역단위내의 세부적인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지역(R1)에서 양의 회귀계수는 ‘관광문화콘텐츠강화’ ‘고래관광 상품 활성화’ 요인으로 나타났고, 관광문화콘텐츠강화의 변수는 생태체험관광강화, 관광브랜드개발, 친환경전략, 관광홍보기능 강화, 문화프로그램 강화, 음식 문화개발이다. 음의 회귀계수는 ‘역사스토리텔링국제화’ 요인으로 나타나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역사스토리텔링국제화의 변수는 고래역사 스토리텔링, 외국과의 교류촉진이다. 이러한 양의회귀계수인 ‘관광문화콘텐츠강화’, ‘고래관광상품활성화’ 부분에 대해 부산지역주민들이 내부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상품개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울산 해안권(R2)지역에서도 양의 회귀계수는 ‘관광문화콘텐츠강화’ ‘고래관광상품활성화’ 요인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반면, 음의 회귀계수는 ‘역사스토리텔링국제화’ 요인으로 나타나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경주해안권(R3)의 경우에는 양의 회귀계수는 ‘관광문화콘텐츠강화’ ‘고래관광상품활성화’ ‘역사스토리텔링국제화’ 요인 모두가 나타났다. 이는 경주 지역이 고래관광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하드웨어요인 영향도 평가

<표5-7>의 하드웨어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부산해안권(R1)와 경주해안권(R3) 두개지역에서만 유의한 영향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타 단위지역의 하드웨어적인 가중치는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민들의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다른 것은 내부지역별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지표를 산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높은 것이다. 하드웨어 평가 결과 값을 살펴보면, 부산 해안권(R1)에서는 ‘관광시설정비’, ‘생태시설강화’들이 양의 계수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고, ‘관광편의시설강화’ 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주 해안권(R3)의 경우는 ‘생태시설강화’, ‘관광편의시설강화’의 두 개의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고래관광안내시스템’, ‘관광시설정비’의 두 개의 요인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이다.

〈표5-7〉고래관광 하드웨어상품 개발요인의 단위지역 영향도 평가(로짓회귀분석)

변 수	부산해안권(R1) (n=421)	울산해안권(R2) (n=408)	경주해안권(R3) (n=319)	포항해안권(R4) (n=362)
HF1	.214	87.098	.362 ^(a)	28.745
HF2	.489 ^(a)	49.436	.589 ^(c)	34.515
HF3	.724 ^(c)	34.385	.514 ^(c)	29.315
HF4	-1.392 ^(c)	42.673	.732 ^(c)	2.298
Constant	-4.885 ^(a)	-781.713	-9.140 ^(c)	135.352
-2Log likelihood	685.054	364.081	1113.978	179.618
Chi-Square	199.554 ^(c)	825.916 ^(c)	120.971 ^(c)	694.297 ^(c)
Pseude R-square	.149 ^(c)	.509 ^(c)	.107 ^(c)	.441 ^(c)

Logit(울산해안지역(R2)/하드웨어 상품개발 정도) = -781.713+87.098.(관광시설정비)+49.436

(관광기반시설조성) + 34.385(고래연구전시확충) + 42.673(고객서비스강화)

주) *: 0.01 < p (a) < 0.05, **: 0.01 < p(b) < 0.01, ***: p(c) < 0.001

제 4 절 고래관광 상품개발 타당도평가

1. 퍼지모형 가치평가

본 연구의 고래관광 상품개발 타당성 평가가 실현가능도 요인과 발생 가능도에 국한된 동기는 그동안 고래관광 상품 개발의 선행연구(변우희, 2009)에서 실현가능도와 발생가능도가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부요인에 관한 중요도 지수가 산정되었고 퍼지모형에 적용됨으로서 선행연구의 단순한 중요도 평가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타당도 수준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박문용·최향식, 1990).

〈표 5-8〉의 실현가능도와 〈표5-9〉의 발생가능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연구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지표별 중요도에 따른 위험정보가 언어적 변수로 표현되고 퍼지집합에 의해 각 요인별 하부계층의 기준에 따른 평가계수로 적용되면서 타당수준을 결정하는 최종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¹⁾

1) 실현가능도와 발생가능도 중 주요인에 의한 각 영향요인의 중요도에 따라 대체적으로 3±2=L, 5±2=M, 7±2=H 로 언어적 변수의 수준별 지표를 설정하였다. 단, 언어적 추론의 특성상 애매성을 전제로 한 전문가의 직관과 통찰력에 의하여 투입변수의 수준정도가 주관적 관점에서 L, M, H의 정도가 평가될 수 있어 정성적 정보의 독자적 추론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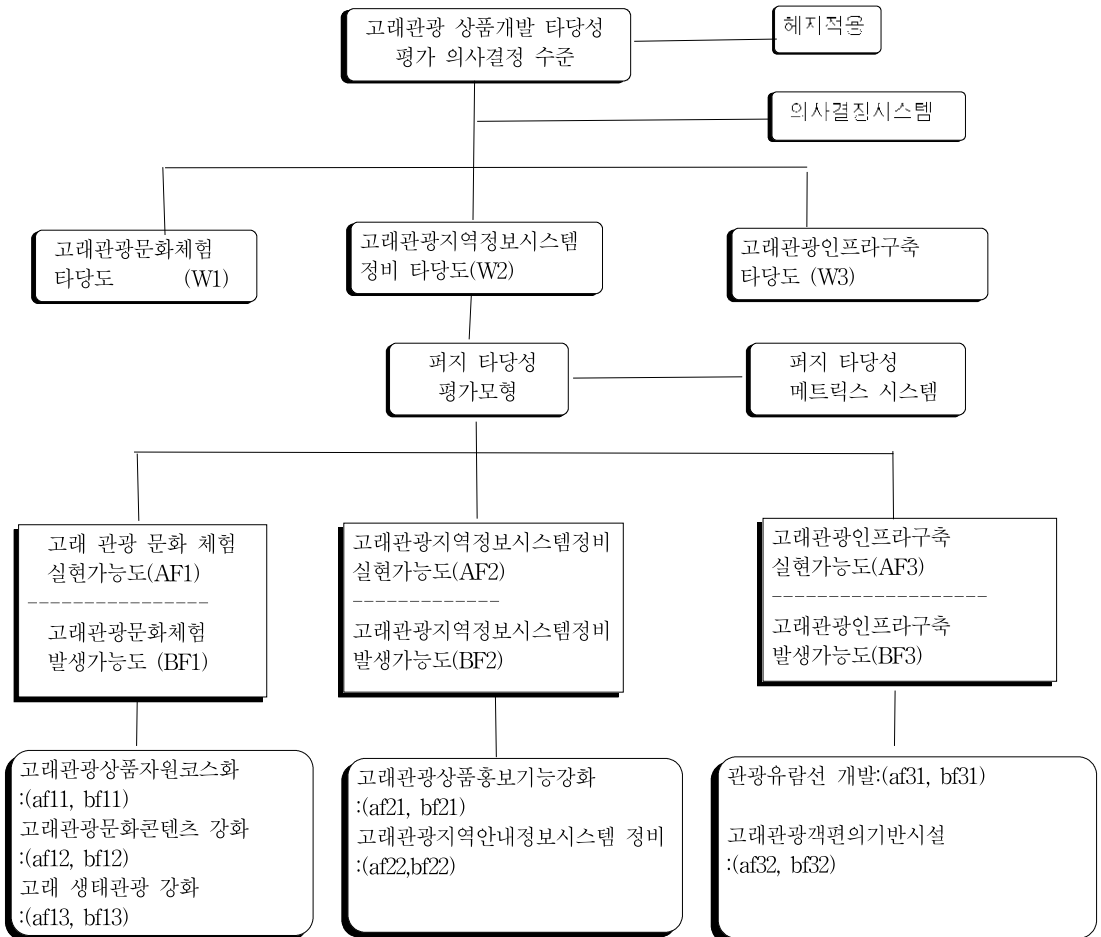
<표5-8> 실현가능도 평가계수(울산)

주요인	하부요인	중요도	표준 편차	분산	언어변수
고래관광 문화체험 강화 (AF ₁)	고래관광상품 자원코스화(af _{1 1})	2.622	1.600	2.559	L
	고래관광문화콘텐츠강화(af _{1 2})	5.533	1.673	2.800	H
	고래생태체험관광강화(af _{1 3})	6.189	2.803	7.856	H
고래관광 지역안내정보 시스템정비 (AF2)	고래관광상품홍보기능강화(af _{2 1})	4.289	2.063	4.256	M
	고래관광지역안내정보시스템 정비 (af _{2 2})	4.900	2.280	5.200	M
고래관광 인프라 구축요인 (AF3)	관광유람선 개발(af _{3 1})	4.244	3.244	3.244	M
	고래관광객편의기반시설조성 (af _{3 2})	4.244	2.197	4.825	L

<표5-9> 발생가능도 평가계수(울산)

주요인	하부요인	중요도	표준 편차	분산	언어변수
고래관광 문화체험 강화 (BF1)	고래관광 상품 자원코스화(bf _{1 1})	2.534	1.660	3.259	L
	고래관광 문화콘텐츠 강화(bf _{1 2})	5.433	2.173	2.801	H
	고래 생태 체험관광 강화(bf _{1 3})	6.889	2.403	6.866	H
고래관광 지역안내정보 시스템정비 (BF2)	고래관광 상품 홍보 기능강화(bf _{2 1})	5.749	2.033	5.456	H
	고래관광 지역 안내 정보시스템 정비 (bf _{2 2})	3.935	2.250	5.209	M
고래관광 인프라 구축요인 (BF3)	관광유람선 개발(bf _{3 1})	5.344	2.254	4.254	M
	고래관광객편의기반시설조성 (bf _{3 2})	2.956	1.742	3.781	L

<그림5-1> 타당성 평가 모형구조



<표5-8>와 <표5-9>에 산정한 언어 변수는 애매성을 전제로 하는 퍼지이론의 일반적인 특성과 정성적 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문가의 직관적 판단에 의한 정보를 연구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유효성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의 보편적 견해를 본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기하고 최종단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평가계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단순하게 보이나 퍼지집합 모형을

통한 의사결정의 추론과정에서 훨씬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공학적인 실용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요도 평가계수는 고래관광 상품 개발 타당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최초 투입 자료이면서 각 요인별 타당도 수준의 기초 자료 임과 동시에 해당 개발 프로젝트의 총체적 타당도를 평가하는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정성적 자료가 직접적으로 정량화 평가로 가능하게 해주는 실행지표인 것이다.

2.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타당성 평가

본 연구 분석은 앞에서 제시한 평가계수, 언어적 변수, 퍼지집합, 최대·최소 합성, 확장원리, 유클리디안거리, 유사추론에 의한 헤지적용 등 일련의 과정적 절차에 의해 결과가 추론되었다. 이것은 동해안 고래관광 상품개발 시에 도출되는 제약요인들이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착수 전에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당수준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측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공급자와 수요자의 견해에 의해 평가된 실현가능도와 발생가능도가 동시에 확장원리에 적용됨으로써 투자자의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평가의 신뢰도가 확보됨으로서 투자에 신중을 기할 수 있으며 투자의 우선 순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래관광 상품개발 타당성평가를 본 논제의 4개 지역인 울산 해안권, 부산 해안권, 경주 해안권, 포항 해안권 순으로 평가를 분석한다. 첫 번째는 울산지역의 고래관광 상품 타당성 평가이다. <표4-10>의 고래관광 문화 체험 강화요인(w1)은 평가계수로 투입된 하부요인인 고래관광 상품자원코스 요인과, 고래관광 문화콘텐츠 강화, 고래생태체험관광 강화와 동일한 하부요인의 발생도(bf11-bf13)에 의해 최종 퍼지값이 산출됨으로써 타당도 수준이 평가된 결과이다. 또한 <그림4-1>의 유사추론에 의한 의사결정의 수정결과는 기준치(τ)보다 유사도(γ)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유사도 비교에 의해 유클리디안거리의 최소값인 2.13(a)의 값이 채택되면서 고래관광 상품개발타당성에 있어 타당수준이 정규적으로 높은 수준(Less high level)임이 파악되었다. 이렇게 고래관광문화체험 강화요인의 다소 높은 타당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단적

이러한 높은 위험성은 울산이 고래관광특구를 지정하여 많은 투자를 하여 가속도가 붙어야 하는 시점 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고래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관광개발을 주도하는 지역 정부 자체의 독창적인 투자여건이 감소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대내·외적인 관광개발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체를 재고하게 하는 요인지표가 되기 때문에 타당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한다는 것은 투자자나 그러한 여건을 제공하는 해당 관광개발입장에서나 양측 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평가임에 틀림없다.

< 표5-11 >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정비요인(W2) 타당성 평가분석(울산)

$2 \frac{\sum af \times \sum bf}{\sum bf} = \frac{(M \times H) + (M \times M)}{H + M}$
<p>① ($M \times H$) max = {0/1.0, 2/0.6, 3/1.0, 4/0.6, 6/1.0, 9/0.0}</p> <p>② ($M \times M$) max = {0/0.0, 1/1.0, 2/1.0, 3/0.0, 4/1.0, 6/0.0, 9/0.0}</p> <p>③ ($H + M$) max = {0/0.0, 1/1.0, 2/1.0, 3/0.6, 4/1.0, 5/1.0, 6/0.0}</p> <p>④ ($M \times H$) + ($M \times M$) max = {0/0.0, 1/1.0, 2/1.0, 3/0.6, 4/1.0, 5/1.0, 6/0.6, 7/1.0, 8/1.0, 9/0.0, 10/1.0}</p>
<p><최종 피지 함수값> $S_2 = \{0/0.0, 1/1.0, 2/1.0, 3/0.6, 4/1.0, 5/1.0, 6/0.6, 7/1.0, 8/1.0\}$</p>
<p><의사결정 추천값> $d(S_2, Low) = \{(0.0-1.0)^2 + (1.0-0.6)^2 + (1.0-0.2)^2 + (0.6-0.0)^2 + (1.0-0.0)^2 + (1.0-0.0)^2 + (0.6-0.0)^2 + (1.0-0.0)^2 + (1.0-0.0)^2\}^{1/2} = 2.74$ $d(S_2, Medium) = \{(0.0-0.3)^2 + (1.0-1.0)^2 + (1.0-1.0)^2 + (0.6-0.3)^2 + (1.0-0.0)^2 + (1.0-0.0)^2 + (0.6-0.0)^2 + (1.0-0.0)^2 + (1.0-0.0)^2\}^{1/2} = 2.18$ $d(S_2, High) = \{(0.0-0.0)^2 + (1.0-0.6)^2 + (1.0-0.2)^2 + (0.6-0.0)^2 + (1.0-0.0)^2 + (1.0-0.0)^2 + (0.6-0.0)^2 + (1.0-0.0)^2 + (1.0-0.0)^2\}^{1/2} = 2.35$</p>
<p><해지적용 추천값> 1. $\tau: (2.74-2.18) / 3 = 0.186$ 2. $\gamma: 2.18-2.35 = 0.17$ 3. $\gamma < \tau: 0.17 < 0.186$ 4. $\alpha: \text{hedge } 2.18$ 5. More Medium</p>

<표5-11>에 제시된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정비요인(W2) 역시 하부요인인 고래관광 상품 홍보 기능 강화요인, 고래관광 지역 안내 정보시스템 정비의 실현가능도와 발생 가능성에 의해 평가된 결과이다. 고래관광정보시스템이 부족함으로써 발생하는 타당도는 최소 거리값인 2.13(a)로서 높은 수준(High level) 값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좀더 세밀한 의사결정을 알아보기 위해 유사도 비교를 한 결과 기준치(τ)가 유사도(γ 값)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요인은 보다 높은 중간수준(more High level)의 타당도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곧 울산의 고래 관광 상품 개발의 하부구조의 취약성과 지역정보시스템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형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결과 값이 제시하는 바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역정보시스템 강화 중 상품홍보 기능은 향후 고래관광 상품 개발이 되어 사업이 시행 될때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타당성이 보통보다는 높게 나타나 장기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표5-12>은 고래관광 인프라 구축 요인(W3)은 하부요인인 고래관광 유람선 개발, 고래관광객 편의기반시설의 실현가능도와 발생 가능성도에 의해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어 의사결정치의 값(α)이 2.17을 기록함으로써 중간수준의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타당도 결과치는 높은 중간 수준의 타당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5-12 > 고래관광인프라구축 요인(W3) 타당성 평가분석(울산)

$3 \quad \frac{\sum af \times \sum bf}{\sum bf} = \frac{(M \times M) + (L \times L)}{M + L}$
<p>① ($M \times M$) max = {0/1.0, 2/0.6, 3/1.0, 4/0.6, 6/1.0, 9/0.0}</p> <p>② ($L \times L$) max = {0/0.0, 1/0.2, 2/0.2, 3/0.2, 4/0.6, 6/0.6, 9/1.0}</p> <p>③ ($M + L$) max = {0/0.0, 1/0.0, 2/1.0, 3/1.0, 4/1.0, 5/1.0, 6/0.0}</p> <p>④ ($M \times M$) + ($L \times L$) max = {0/0.0, 1/0.0, 2/1.0, 3/1.0, 4/0.6, 5/1.0, 6/0.6, 7/1.0, 8/0.6, 9/1.0, 10/0.6, 11/1.0, 12/0.0, 13/1.0, 15/0.0, 18/0.0}</p> <p><최종피지함수값> $S_3 = \{0/0.0, 1/1.0, 2/0.6, 3/0.6, 4/0.6, 5/0.6, 6/0.0\}$</p> <p><의사결정 추론값> $(Low) = \{(0.0-1.0)^2 + (1.0-0.6)^2 + (0.6-0.2)^2 + (0.6-0.0)^2 + (1.0-0.0)^2 + (1.0-0.0)^2 + (0.6-0.0)^2 + (1.0-0.0)^2 + (1.0-0.0)^2\}^{1/2} = 2.46$</p> $d(S_2, Medium) = \{(0.0-0.3)^2 + (1.0-1.0)^2 + (0.6-1.0)^2 + (0.6-0.3)^2 + (1.0-0.0)^2 + (1.0-0.0)^2 + (0.6-0.0)^2 + (1.0-0.0)^2 + (1.0-0.0)^2\}^{1/2} = 2.17$ $d(S_2, High) = \{(0.0-0.0)^2 + (1.0-0.6)^2 + (0.6-0.2)^2 + (0.6-0.0)^2 + (1.0-0.0)^2 + (1.0-0.0)^2 + (0.6-0.0)^2 + (1.0-0.0)^2 + (1.0-0.0)^2\}^{1/2} = 2.24$
<p><해지적용 추론값></p> <p>1. $\tau: (2.46-2.17)/3 = 0.097$ 2. $\gamma: 2.17-2.24 = 0.07$</p> <p>3. $\tau \geq \gamma: 0.097 > 0.07$ 4. $\alpha: 2.17$</p> <p>5. More Medium</p>

<표5-13> 실현가능도 평가계수(부산)

주요인	하부요인	중요도	표준 편차	분산	언어변수
고래관광 문화체험 강화 (AF ₁)	고래관광상품 자원코스화(af _{1 1})	2.622	1.600	2.559	M
	고래관광문화콘텐츠강화(af _{1 2})	5.533	1.673	2.800	H
	고래생태체험관광강화(af _{1 3})	6.189	2.803	7.856	L
고래관광 지역안내정보 시스템정비 (AF2)	고래관광상품홍보기능강화(af _{2 1})	4.289	2.063	4.256	M
	고래관광지역안내정보시스템 정비 (af _{2 2})	4.900	2.280	5.200	M
고래관광 인프라 구축요인 (AF3)	관광유람선 개발(af _{3 1})	4.244	3.244	3.244	M
	고래관광객편의기반시설조성 (af _{3 2})	4.244	2.197	4.825	H

<표5-14> 발생가능도 평가계수(부산)

주요인	하부요인	중요도	표준 편차	분산	언어변수
고래관광 문화체험 강화 (BF1)	고래관광 상품 자원코스화(bf _{1 1})	2.534	1.660	3.259	L
	고래관광 문화콘텐츠 강화(bf _{1 2})	5.433	2.173	2.801	M
	고래 생태 체험관광 강화(bf _{1 3})	6.889	2.403	6.866	M
고래관광 지역안내정보 시스템정비 (BF2)	고래관광 상품 홍보 기능강화(bf _{2 1})	5.749	2.033	5.456	H
	고래관광 지역 안내 정보시스템 정비 (bf _{2 2})	3.935	2.250	5.209	M
고래관광 인프라 구축요인 (BF3)	관광유람선 개발(bf _{3 1})	5.344	2.254	4.254	M
	고래관광객편의기반시설조성 (bf _{3 2})	2.956	1.742	3.781	H

< 표 5-15 > 고래관광문화체험 강화 요인(W₁) 타당성 평가 분석(부산)

$1 \quad \frac{\sum af \times \sum bf}{\sum bf} = \frac{\{(M \times L) + (M \times H)\} + (M \times M)}{L + H + M}$	
①(M×L)	
max = {0/1.0, 1./0.6, 2/0.6, 3/0.3, 4/0.2, 6/0.2, 9/0.0}	
② (M×H)	
max = {0/0.3, 1/0.2, 2/0.6, 3/1.0, 4/0.6, 6/1.0, 9/0.3}	
③	{(M×L)+(M×H)}
max = {0/0.3, 1./0.3, 2/0.6, 3/1.0, 4/0.6, 5/0.6, 6/1.0, 7/0.6, 8/0.6, 9/0.3, 10/0.3, 11/0.3, 12/0.3, 13/0.2, 15/0.2, 18/0.0}	
④(M×M)	
max = {0/0.3, 1/1.0, 2/1.0, 3/0.3, 4/1.0, 6/0.3, 9/0.3}	
⑤	{(M×L)+(M×H)}+(M×M)
max = {0/0.3, 1./0.3, 2/0.3, 3/0.3, 4/0.3, 5/1.0, 6/1.0, 7/0.6, 8/1.0, 9/1.0, 10/0.6, 11/1.0, 12/0.6, 13/0.6, 14/0.3, 15/0.3, 16/0.3, 17/0.3, 18/0.3, 19/0.3, 20/0.2, 21/0.2, 22/0.2, 24/0.0, 27/0.0}	
⑥	(L+H)+M
max = {0/0.0, 1./0.2, 2/0.6, 3/1.0, 4/0.6, 5/0.6, 6/1.0, 7/0.6, 8/0.6, 9/1.0}	
<최종 퍼지함수값>	
1 = {0/0.0, 1/0.2, 2/1.0, 3/1.0, 4/0.6, 5/0.6, 6/0.6, 7/0.3, 8/0.3, 9/0.3, 10/0.2, 11/0.2, 12/0.2, 13/0.2}	
<의사결정 추론값>	
(<i>S</i> ₁ , <i>Low</i>) = {(0.0-1.0) ² + (0.6-0.6) ² + (1.0-0.2) ² + (1.0-0.0) ² + (0.6-0.0) ² + (0.6-0.0) ² + (0.6-0.0) ² + (0.3-0.0) ² + (0.3-0.0) ² + (0.3-0.0) ² + (0.2-0.0) ² + (0.2-0.0) ² + (0.2-0.0) ² } ^{1/2} = 2.07	
d(<i>S</i> ₁ , <i>Medium</i>) = {(0.0-0.3) ² + (0.2-1.0) ² + (1.0-1.0) ² + (1.0-0.3) ² + (0.6-0.0) ² + (0.6-0.0) ² + (0.6-0.0) ² + (0.3-0.0) ² + (0.3-0.0) ² + (0.3-0.0) ² + (0.2-0.0) ² + (0.2-0.0) ² + (0.2-0.0) ² } ^{1/2} = 1.5	
d(<i>S</i> ₁ , <i>High</i>) = {(0.0-0.0) ² + (0.2-0.2) ² + (1.0-0.6) ² + (1.0-1.0) ² + (0.6-0.0) ² + (0.6-0.0) ² + (0.6-0.0) ² + (0.3-0.0) ² + (0.3-0.0) ² + (0.3-0.0) ² + (0.2-0.0) ² + (0.2-0.0) ² + (0.2-0.0) ² } ^{1/2} = 1.09	
<해지적용 추론값>	
1. τ: (2.07-1.09)/3 = 0.33 2. γ: 1.5-1.09 = 0.41	
3. γ ≥ τ: 0.41 > 0.33 4. α: 1.09	
5. Less High	

<표5-16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정비요인(W₂) 타당성 평가분석(부산)

$\sum af \times \sum bf = \frac{(M \times H) + (M \times M)}{H + M}$ <p>① (H) max = {0/0.0,1/0.2,2/0.6,3/1.0,4/0.6,6/1.0,9/0.3}</p> <p>② $(M \times M)$ max = {0/0.3,1/1.0,2/1.0,3/0.3,4/1.0,6/0.3,9/0.3}</p> <p>③ $(H + M)$ max = {0/0.0,1/1.2,2/0.3,4/1.0,4/1.0,5/1.0,6/0.3}</p> <p>④ $(M \times H) + (M \times M)$</p> <p>max = {0/0.0,1/0.2,2/0.6,3/1.0,4/1.0,5/1.0,6/0.6,7/1.0,8/1.0,9/0.3,10/1.0,}</p> <p>{11/0.3,12/0.3,13/0.3,15/0.3,18/0.3}</p> <p><최종 퍼지 함수값></p> <p>$S_2 = \{0/0.0,1/1.0,2/1.0,3/0.3,4/0.3,5/0.3,6/0.3\}$</p> <p><의사결정 추론값></p> <p>$(z, Low) = \{(0.0-1.0)^2 + (0.3-0.6)^2 + (0.6-0.2)^2 + (0.6-0.0)^2 + (0.6-0.0)^2 + (0.6-0.0)^2 + (0.3-0.0)2\}^{1/2} = 1.77$</p> <p>$d(S_2, Medium) = \{(0.0-0.3)^2 + (0.3-1.0)^2 + (0.6-1.0)^2 + (0.6-0.3)^2 + (0.6-0.0)^2 + (0.6-0.0)^2 + (0.3-0.0)^2\}^{1/2} = 2.19$</p> <p>$d(S_2, High) = \{(0.0-0.0)^2 + (0.3-0.6)^2 + (0.6-0.2)^2 + (0.6-0.0)^2 + (0.6-0.0)^2 + (0.6-0.0)^2 + (0.3-0.0)^2\}^{1/2} = 1.19$</p> <p><해지적용 추론값></p> <p>1. $\tau: (2.19-1.19)/3 = 0.33$ 2. $\gamma: 2.19-1.19 = 1.00$</p> <p>3. $\tau < \gamma: 0.33 < 1.00$ 4. $\alpha: 1.19$</p> <p>5. Less High</p>
--

부산 해안권의 고래관광 상품 개발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표5-15>의 고래관광 문화 체험 강화요인(W1)은 평가계수로 투입된 하부요인인 고래관광 상품자원코스 요인과, 고래관광 문화콘텐츠 강화, 고래생태체험관광의 실현가능도와 발생가능도에 의해 최종 퍼지값이 산출됨으로써 타당도 수준이 평가된 결과이다. 유사추론에 의한 의사결정의 수정결과는 기준치(τ)보다 유사도(γ)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유사도 비교에 의해 유클리디안거리의 최소값인 1.09(α)의 값이 채택되면서 고래 관광 상품 개발 타당성에 있어 타당수준이 정규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Less high level)임이 파악되었다. 이렇게 부산의 경우, 고래관광문화체험 강화요인의 다소 높은 타당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단적으로 부산이 고래관광 관련 문화적인 면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해양 대도시로서의 다양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동해안 고래관광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태체험관광에 있어서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확대하여 고래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5-16>에 제시된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정비요인(S2) 역시 하부요인인 고래관광 상품 홍보 기능 강화요인, 고래

<표5-17>고래관광인프라구축 요인(W3) 타당성 평가분석(부산)

$3 \quad \frac{\sum af \times \sum bf}{\sum bf} = \frac{(M \times M) + (H \times H)}{M + H}$	
① (M×M)	max = {0/0.3, 1/1.0, 2/1.0, 3/0.3, 4/1.0, 6/1.0, 9/0.3}
② H	max = {0/0.0, 1/0.2, 2/0.2, 3/0.2, 4/0.6, 6/0.6, 9/1.0}
③ (M+H)	max = {0/0.0, 1/0.2, 2/0.3, 3/0.6, 4/1.0, 5/0.3, 6/0.3}
④ (M×M)+(H×H)	
max = {0/0.0, 1/0.2, 2/0.2, 3/0.2, 4/0.3, 5/0.6, 6/0.6, 7/0.6, 8/0.6, 9/0.3, 10/1.0, 11/1.0, 12/0.6, 13/1.0, 15/1.0, 18/0.3}	
<최종피험수값>	
S ₃ = {0/0.0, 1/0.3, 2/0.6, 3/0.6, 4/0.6, 5/0.6, 6/0.3}	
<의사결정 추론값>	
$(3.Low) = \{(0.0-1.0)^2 + (0.3-0.6)^2 + (0.6-0.2)^2 + (0.6-0.0)^2 + (0.6-0.0)^2 + (0.6-0.0)^2 + (0.3-0.0)^2\}^{1/2} = 1.56$	
$d(S3, Medium) = \{(0.0-0.3)^2 + (0.3-1.0)^2 + (0.6-1.0)^2 + (0.6-0.3)^2 + (0.6-0.0)^2 + (0.6-0.0)^2 + (0.3-0.0)^2\}^{1/2} = 1.28$	
$d(S3, High) = \{(0.0-0.0)^2 + (0.3-0.6)^2 + (0.6-0.2)^2 + (0.6-0.0)^2 + (0.6-0.0)^2 + (0.6-0.0)^2 + (0.3-0.0)^2\}^{1/2} = 1.19$	
<해지적용 추론값>	
1. τ: (1.56-1.19)/ 3 = 0.12	2. γ: 1.28-1.19 = 0.09
3. τ ≥ γ 0.12 > 0.09	4. α: 1.19
5. More High	

관광지역정보 시스템 정비의 실현가능도와 발생 가능성도에 의해 평가된 결과이다. 유사추론에 의한 의사결정의 수정결과는 기준치(τ)가 유사도(γ)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유사도 비교에 의해 유클리디안거리의 최소값인 1.19(a)의 값이 채택되면서 고래 관광 상품 개발 타당성에 있어 타당수준이 정규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Less high level)임이 파악되었다. 이것은 부산의 고래 관광 상품 개발의 하부구조의 취약성과 지역정보시스템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형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결과 값이 제시하는 바는 부산지역은 해외 관광객을 동해안 고래관광으로 흡입할 수 있는 지역으로 관광개발의 성장영향을 주는 고래관광정보시스템 강화는 매우 높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표5-17>은 고래관광 인프라 구축 요인(S3)은 하부요인인 고래관광 유람선 개발, 고래관광객 편의기반시설의 실현가능도와 발생 가능성도에 의해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어 의사결정치의 값(α)이 1.19을 기록함으로써 다소 높은 수준(Less high level)의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타당도 결과치는 부산이 고래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크루스 상품과 함께 동해안 지역의 고래관광과 향후 연계하는 방안을 현실화 한다면 상호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표5-18> 실현가능도 평가계수(경주)

주요인	하부요인	중요도	표준 편차	분산	언어변수
고래관광 문화체험 강화 (AF ₁)	고래관광상품 자원코스화(af _{1 1})	2.622	1.600	2.559	L
	고래관광문화콘텐츠강화(af _{1 2})	5.533	1.673	2.800	H
	고래생태체험관광강화(af _{1 3})	6.189	2.803	7.856	H
고래관광 지역안내정보 시스템정비 (AF2)	고래관광상품홍보기능강화(af _{2 1})	4.289	2.063	4.256	M
	고래관광지역안내정보시스템 정비 (af _{2 2})	4.900	2.280	5.200	M
고래관광 인프라 구축요인 (AF3)	관광유람선 개발(af _{3 1})	4.244	3.244	3.244	M
	고래관광객편의기반시설조성 (af _{3 2})	4.244	2.197	4.825	L

<표5-19> 발생가능도 평가계수(경주)

주요인	하부요인	중요도	표준 편차	분산	언어변수
고래관광 문화체험 강화 (BF1)	고래관광 상품 자원코스화(bf _{1 1})	2.534	1.660	3.259	L
	고래관광 문화콘텐츠 강화(bf _{1 2})	5.433	2.173	2.801	H
	고래 생태 체험관광 강화(bf _{1 3})	6.889	2.403	6.866	H
고래관광 지역안내정보 시스템정비 (BF2)	고래관광 상품 홍보 기능강화(bf _{2 1})	5.749	2.033	5.456	H
	고래관광 지역 안내 정보시스템 정비 (bf _{2 2})	3.935	2.250	5.209	M
고래관광 인프라 구축요인 (BF3)	관광유람선 개발(bf _{3 1})	5.344	2.254	4.254	M
	고래관광객편의기반시설조성 (bf _{3 2})	2.956	1.742	3.781	L

<표5-20 > 고래관광문화체험 강화 요인(W1) 타당성 평가 분석(경주)

$I = \frac{\sum af \times \sum bf}{\sum bf} = \frac{\{(L \times L) + (H \times M)\} + (M \times H)}{L + M + H}$	
① (L×L)	
max	{0/0.0, 1/0.6, 2/0.2, 3/0.0, 4/0.2, 6/0.0, 9/0.0}
② (H×M)	
max	{0/0.0, 1/0.2, 2/0.2, 3/0.2, 4/0.6, 6/1.0, 9/0.3}
③{(L×L)+(H×M)}	max = {0/0.0, 1/0.0, 2/0.2, 3/0.2, 4/0., 5/0.6, 6/0.2, 7/0.6, 8/0.2, 9/0.0, 10/0.3, 11/0.2, 12/0.0, 13/0.2, 15/0.0, 18/0.0}
④(L+M)	
max	{0/0.0, 1/0.3, 2/0.6, 3/0.6, 4/0.3, 5/0.2, 6/0.0}
⑤	{(L×L)+(H×M)+(M×H)}
max	{0/0.0, 1/0.0, 2/0.0, 3/0.2, 4/0.2, 5/0.2, 6/0.2, 7/0.2, 8/0.2, 9/0.6, 10/0.2, 11/0.6, 12/0.2, 13/0.6, 14/0.3, 15/0.2, 16/0.3, 17/0.2, 18/0.0, 19/0.3, 20/0.2, 21/0.0, 22/0.2, 24/0.0, 27/0.0}
⑥	(L+M)+H
max	{0/0.0, 1/0.0, 2/0.2, 3/0.3, 4/0.6, 5/0.6, 6/0.6, 7/0.3, 8/0.2, 9/0.0}
<최종 퍼지함수값>	
I	{0/0.0, 1/0.2, 2/0.3, 3/0.3, 4/0.3, 5/0.2, 6/0.2, 7/0.2, 8/0.2, 9/0.0}
<의사결정 추론값>	
(Low)	{(0.0-1.0) ² +(0.2-0.6) ² +(0.3-0.2) ² +(0.3-0.0) ² +(0.3-0.0) ² +(0.2-0.0) ² +(0.2-0.0) ² +(0.2-0.0) ² +(0.2-0.0) ² +(0.2-0.0) ² +(0.2-0.0) ² } ^{1/2} = 1.24
d(S, Medium)	{(0.0-0.3) ² +(0.2-1.0) ² +(0.3-1.0) ² +(0.3-0.3) ² +(0.3-0.0) ² +(0.2-0.0) ² +(0.2-0.0) ² +(0.2-0.0) ² +(0.2-0.0) ² +(0.0-0.0) ² } = 1.21
d(S, High)	{(0.0-0.0) ² +(0.2-0.2) ² +(0.3-0.6) ² +(0.3-1.0) ² +(0.3-0.0) ² +(0.2-0.0) ² +(0.6-0.0) ² +(0.6-0.0) ² +(0.2-0.0) ² +(0.2-0.0) ² } ^{1/2} = 1.23
<해지적용 추론값>	
1. τ: (1.24-1.21)/3 = 0.01	2. γ: 1.21-1.23 = 0.02
3. γ ≥ τ: 0.02 > 0.01	4. α: 1.21
5. Less Medium	

경주 해안권의 고래관광 상품 개발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표5-20>의 고래관광 문화 체험 강화요인(W1)은 평가계수로 투입된 하부요인인 고래관광 상품자원코스 요인과, 고래관광 문화콘텐츠 강화, 고래생태체험관광의 실행 실현가능도와 발생가능도에 의해 최종 퍼지값이 산출됨으로써 타당도 수준이

평가된 결과이다. 유사추론에 의한 의사결정의 수정결과는 기준치(τ)보다 유사도(γ)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유사도 비교에 의해 유클리디안거리의 최소값인 1.21(a)의 값이 채택되면서 고래관광 상품개발 타당성에 있어 수준이

<표5-21>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정비요인(W2) 타당성 평가분석(경주)

${}_2 \frac{\sum af \times \sum bf}{\sum bf} = \frac{(H \times H) + (H \times H)}{H + H}$ <p>① H max = {0/0.0, 1/0.2, 2/0.2, 3/0.2, 4/0.6, 5/0.6, 6/0.6, 9/1.0}</p> <p>② $(H+H)$ max = {0/0.0, 1/0.0, 2/0.2, 3/0.2, 4/0.6, 5/0.6, 6/1.0}</p> <p>③ $(H \times H) + (H \times H)$</p> <p>max = {0/0.0, 1/0.0, 2/0.2, 3/0.2, 4/0.2, 5/0.2, 6/0.2, 7/0.2, 8/0.2, 9/0.2, 10/0.6}</p> <p>{11/0.2, 12/0.6, 13/0.6, 15/0.6, 18/1.0}</p> <p><최종 퍼지 함수값></p> <p>$S_2 = \{0/0.0, 1/0.2, 2/0.2, 3/0.6, 4/0.2, 5/0.2, 6/0.2\}$</p> <p><의사결정 추론값></p> <p>(Low) = $\{(0.0-1.0)^2 + (0.2-0.6)^2 + (0.2-0.2)^2 + (0.6-0.0)^2 + (0.2-0.0)^2 + (0.2-0.0)^2 + (0.2-0.0)^2\}^{1/2} = 0.8$</p> <p>$d(S_2, Medium) = \{(0.0-0.3)^2 + (0.2-1.0)^2 + (0.2-1.0)^2 + (0.6-0.3)^2 + (0.2-0.0)^2 + (0.2-0.0)^2 + (0.2-0.0)^2\}^{1/2} = 1.22$</p> <p>$d(S_2, High) = \{(0.0-0.0)^2 + (0.2-0.2)^2 + (0.2-0.6)^2 + (0.6-1.0)^2 + (0.2-0.0)^2 + (0.2-0.0)^2 + (0.2-0.0)^2\}^{1/2} = 0.66$</p> <p><해지적용 추론값></p> <p>1. $\tau: 1.22-0.5/3 = 0.24$ 2. $\gamma: 0.66-0.8 = 0.14$</p> <p>3. $\gamma < \tau: 0.14 < 0.24$ 4. $\alpha: 0.66$</p> <p>5. More High</p>
--

정규적으로 다소 높은 중간수준(Less Medium level)임이 파악되었다. 이렇게 경주의 경우, 고래관광문화체험 강화요인의 다소 높은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단적으로 부산과 달리 고래관광 관련한 문화적인 면이 연계되기 때문이다. 신라 천년의 역사 고도로서의 다양한 유적관광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동해안 고래관광개발의 콘텐츠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래 생태관광의 관경을 중심으로 하는 단조로운 고래관광 상품에 신라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코스를 만들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훨씬 구매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이다. <표5-21>에 제시된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정비요인(W2) 역시 하부요인인 고래관광 상품 홍보 기능 강화요인, 고래관광 지역 안내 정보시스템 정비의 실현가능도와 발생 가능성에 의해 평가된 결과이다. 유사추론에 의한 의사결정의 수정결과는 기준치(τ)가 유사도(γ)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유사도 비교에 의해 유클리디안거리의 최소값인 0.66(a)의 값이 채택되면서 고래관광 상품개발 타당성에 있어 타당수준이 정규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More high level)임이 파악되었

다. 특히 이 결과 값이 제시하는 바는 경주지역의 기존 관광 자원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래관광 상품 정보를 강화 한다면 경주 관광객들이 동해안 고

<표5-22> 고래관광인프라구축 요인(W3) 타당성 평가분석(경주)

$3 \frac{\sum af \times \sum bf}{\sum bf} = \frac{(M \times M) + (L \times L)}{M + L}$	
① (M M)	max = {0/0.3, 1/1.0, 2/1.0, 3/0.3, 4/1.0, 6/1.0, 9/0.3}
② (L×L)	max = {0/1.0, 1/0.6, 2/0.2, 3/0.0, 4/0.2, 6/0.0, 9/0.0}
③ (M+L)	max = {0/0.3, 1/1.0, 2/1.0, 3/0.6, 4/0.3, 5/0.2, 6/0.0}
④ (M M) + (L×L)	max = {0/0.3, 1/1.0, 2/1.0, 3/0.6, 4/1.0, 5/0.6, 6/0.2, 7/0.6, 8/0.2, 9/0.3, 10/0.3, 11/0.2, 12/0.0, 13/0.2, 15/0.0, 18/0.0}
<최종퍼지함수값>	
$S_3 = \{0/0.0, 1/1.0, 2/1.0, 3/0.6, 4/0.3, 5/0.6, 6/0.2\}$	
<의사결정 추론값>	
$(3.Low) = \{(0.0-1.0)^2 + (1.0-0.6)^2 + (1.0-0.2)^2 + (0.6-0.0)^2 + (0.3-0.0)^2 + (0.6-0.0)^2 + (0.2-0.0)^2\}^{1/2} = 0.63$	
$d(S_3.Medium) = \{(0.0-0.3)^2 + (1.0-1.0)^2 + (1.0-1.0)^2 + (0.6-0.3)^2 + (0.6-0.0)^2 + (0.6-0.0)^2 + (0.2-0.0)^2\}^{1/2} = 0.97$	
$d(S_3.High) = \{(0.0-0.0)^2 + (1.0-0.2)^2 + (1.0-0.6)^2 + (0.6-1.0)^2 + (0.3-0.0)^2 + (0.6-0.0)^2 + (0.2-0.0)^2\}^{1/2} = 1.20$	
<해지적용 추론값>	
1. $\tau: (1.20-0.63)/3 = 0.67$	2. $\gamma: 0.63-0.97 = 0.34$
3. $\tau \geq \gamma: 0.67 > 0.34$	4. $\alpha: 0.63$
5. More Low	

래 관광으로 흡입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래관광정보시스템 강화는 매우 높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표5-22>은 고래관광 인프라 구축 요인(W3)은 하부요인인 고래관광 유람선 개발, 고래관광객 편의기반시설의 실현가능도와 발생 가능성도에 의해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어 의사결정치의 값(α)이 0.6을 기록함으로써 다소 낮은 수준(More Low level)의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타당도 결과치는 경주가 관광도시의 기존 고객 편의 관광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다른 요인에 비해 비중을 낮게 본 것이다. 현재 경주에서 최근들어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 양남, 양북 해안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성 타당성용역(경주시, 2009). 중이어서 본 연구도 경주해안권의 관광 상품 개발 정책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표5-23> 실현가능도 평가계수(포항)

주요인	하부요인	중요도	표준편차	분산	언어변수
고래관광 문화체험 강화 (AF ₁)	고래관광상품 자원코스화(af _{1 1})	2.622	1.600	2.559	L
	고래관광문화콘텐츠강화(af _{1 2})	5.533	1.673	2.800	H
	고래생태체험관광강화(af _{1 3})	6.189	2.803	7.856	H
고래관광 지역안내정보 시스템정비 (AF2)	고래관광상품홍보기능강화(af _{2 1})	4.289	2.063	4.256	M
	고래관광지역안내정보시스템 정비 (af _{2 2})	4.900	2.280	5.200	M
고래관광 인프라 구축요인 (AF3)	관광유람선 개발(af _{3 1})	4.244	3.244	3.244	M
	고래관광객편의기반시설조성 (af _{3 2})	4.244	2.197	4.825	L

<표5-24> 실현가능도 평가계수(포항)

주요인	하부요인	중요도	표준편차	분산	언어변수
고래관광 문화체험 강화 (BF1)	고래관광 상품 자원코스화(bf _{1 1})	2.534	1.660	3.259	L
	고래관광 문화콘텐츠 강화(bf _{1 2})	5.433	2.173	2.801	H
	고래 생태 체험관광 강화(bf _{1 3})	6.889	2.403	6.866	H
고래관광 지역안내정보 시스템정비 (BF2)	고래관광 상품 홍보 기능강화(bf _{2 1})	5.749	2.033	5.456	H
	고래관광 지역 안내 정보시스템 정비 (bf _{2 2})	3.935	2.250	5.209	M
고래관광 인프라 구축요인 (BF3)	관광유람선 개발(bf _{3 1})	5.344	2.254	4.254	M
	고래관광객편의기반시설조성 (bf _{3 2})	2.956	1.742	3.781	L

포항 해안권의 고래관광 상품 개발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표5-25>의 고래관광 문화 체험 강화요인(W1)은 평가계수로 투입된 하부요인인 고래관광 상품자원코스 요인과, 고래관광 문화콘텐츠 강화, 고래생태체험관광의 실현가능도와 발생 가능성도에 의해 최종 퍼지 값이 산출됨으로써 타당도 수준이 평가된 결과이다. 유사추론에 의한 의사결정의 수정결과는 기준치(τ)가 유사도

<표5-25> 고래관광문화체험 강화 요인(W1) 타당성평가 분석(포항)

$1 \quad \frac{\sum af \times \sum bf}{\sum bf} = \frac{\{(L \times L) + (H \times H)\} + (L \times M)}{L + H + M}$	
① ($L \times L$)	
max = {0/1.0, 1./0.6, 2/0.2, 3/0.0, 4/0.2, 6/0.0, 9/0.0}	
② ($H \times H$)	
max = {0/0.0, 1/0.2, 2/0.2, 3/0.2, 4/0.2, 6/0.6, 9/1.0}	
③ { ($L \times L$) + ($H \times H$) }	max = {0/0.0, 1/0.2, 2/0.2, 3/0.2, 4/0.2, 5/0.2, 6/0.6, 7/0.6, 8/0.2, 9/0.0, 10/0.2, 11/0.2, 12/0.0, 13/0.2, 15/0.0, 18/0.0}
④ ($L + H$)	
max = {0/0.0, 1/0.2, 2/0.6, 3/1.0, 4/0.6, 5/0.2, 6/0.0}	
⑤	{($L \times L$) + ($H \times H$) + ($L \times M$)}
max = {0/0.2, 1./0.0, 2/0.2, 3/0.2, 4/0.2, 5/0.2, 6/0.6, 7/0.6, 8/0.6, 9/0.6, 10/0.3, 11/0.2, 12/0.2, 13/0.2, 14/0.2, 15/0.2, 16/0.2, 17/0.2, 18/0.0, 19/0.2, 20/0.2, 21/0.0, 22/0.0, 24/0.0, 27/0.0}	
⑥	($L + H$) + M
max = {0/0.0, 1./0.2, 2/0.3, 3/0.6, 4/0.6, 5/1.0, 6/0.6, 7/0.3, 8/0.2, 9/0.0}	
<최종 퍼지합수값>	
$1 = \{0/0.0, 1./0.6, 2/0.6, 3/0.6, 4/0.3, 5/0.3, 6/0.2, 7/0.2, 8/0.3, 9/0.2$	
<의사결정 추론값>	
$(1, Low) = \{(0.0 - 1.0)^2 + (0.6 - 0.6)^2 + (0.6 - 0.2)^2 + (0.6 - 0.0)^2 + (0.3 - 0.0)^2 + (0.3 - 0.0)^2 + (0.2 - 0.0)^2 + (0.2 - 0.0)^2 + (0.3 - 0.0)^2 + (0.2 - 0.0)^2\}^{1/2} = 0.94$	
$d(S_1, Medium) = \{(0.0 - 0.3)^2 + (0.6 - 1.0)^2 + (0.6 - 1.0)^2 + (0.6 - 0.3)^2 + (0.3 - 0.0)^2 + (0.3 - 0.0)^2 + (0.2 - 0.0)^2 + (0.2 - 0.0)^2 + (0.3 - 0.0)^2 + (0.2 - 0.0)^2\} = 0.93$	
$d(S_1, High) = \{(0.0 - 0.0)^2 + (0.6 - 0.2)^2 + (0.6 - 0.6)^2 + (0.6 - 1.0)^2 + (0.3 - 0.0)^2 + (0.3 - 0.0)^2 + (0.2 - 0.0)^2 + (0.2 - 0.0)^2 + (0.3 - 0.0)^2 + (0.2 - 0.0)^2\}^{1/2} = 0.84$	
<해지적용 추론값>	
1. $\tau: (0.94 - 0.84) / 3 = 0.27$	2. $\gamma: 0.93 - 0.84 = 0.09$
3. $\tau \geq \gamma: 0.27 > 0.09$	4. $\alpha = 0.84$
5. More High	

(y)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유사도 비교에 의해 유클리디안 거리의 최소 값인 0.84(a)의 값이 채택되면서 고래 관광 상품 개발 타당성에 있어 타당수준이 정규적으로 다소 높은 중간수준(More High level)임이 파악되었다. 이렇게 포항의 경우, 고래관광문화체험 강화요인의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고래관광 자원과 관련하여 연계 할 수 있는 것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항은 해안지역인 구룡포 다무포 지역의 바다에서 가장 많은 고래가 출현한다는 고래 연구소의 목시적 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인 유적이나 기록이 향후 새롭게 발굴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다행히 포항시 차원에서 해양개발 차원에서 다무포 지역을 해양관광 기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이다. 포항시의 이러한 노력은 동해안 고래관광 상품개발의 필요성과 맞물려 보다 현실성 있는 접근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포항도 울산지역과 같이 포스코가 있어 철강 산업도시로 대외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특히 울산의 최근 고래관광의 노력을 보듯이, 관광 개발이 도시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다.

<표5-26>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정비요인(W2) 타당성 평가분석(포항)

$2 \frac{\sum af \times \sum bf}{\sum bf} = \frac{(M \times H) + (M \times M)}{H + M}$
<p>① ($M \times H$) max = {0/0.0,1/0.2,2/0.6,3/1.0,4/0.6,6/1.0,9/0.3}</p> <p>② ($M \times M$) max = {0/0.3,1/1.0,2/1.0,3/0.3,4/1.0,6/0.3,9/0.3}</p> <p>③ ($H + M$) max = {0/0.0,1/0.2,2/0.3,4/1.0,5/1.0,6/0.3}</p> <p>④ ($M \times H$) + ($M \times M$) max = {0/0.0,1/1.0,2/1.0,3/0.6,4/1.0,5/1.0,6/0.6,7/1.0,8/1.0,9/0.0,10/1.0}</p>
<p><최종 퍼지 함수값> $S_2 = \{0/0.0,1/1.0,2/1.0,3/0.3,4/0.3,5/0.3,6/0.3\}$</p>
<p><의사결정 추론값> $(S_2.Low) = \{(0.0-1.0)^2 + (1.0-0.6)^2 + (1.0-0.2)^2 + (0.3-0.0)^2 + (0.3-0.0)^2 + (0.3-0.0)^2 + (0.3-0.0)^2\}^{1/2} = 1.47$</p> <p>$d(S_2.Medium) = \{(0.0-0.3)^2 + (1.0-1.0)^2 + (1.0-1.0)^2 + (0.3-0.3)^2 + (0.3-0.0)^2 + (0.3-0.0)^2 + (0.3-0.0)^2\}^{1/2} = 0.6$</p> <p>$d(S_2.High) = \{(0.0-1.0)^2 + (1.0-0.2)^2 + (1.0-0.6)^2 + (0.3-1.0)^2 + (0.3-0.0)^2 + (0.3-0.0)^2 + (0.3-0.0)^2\}^{1/2} = 1.91$</p>
<p><해지적용 추론값></p> <p>1. $\tau: (1.91-0.6)/3 = 0.44$ 2. $\gamma: 0.6-1.47 = 0.87$ 3. $\gamma < \tau: 0.44 < 0.87$ 4. $\alpha: = 0.6$ 5. Less Medium</p>

< 표5-27 > 고래관광인프라구축 요인(W3) 타당성 평가분석(포항)

$3 \quad \frac{\sum af \times \sum bf}{\sum bf} = \frac{(M \times M) + (H \times L)}{M + L}$
① (M M) max = {0/0.3, 1/1.0, 2/1.0, 3/0.3, 4/1.0, 6/0.3, 9/0.3}
② L) max = {0/0.0, 1/0.2, 2/0.6, 3/0.6, 4/0.2, 6/0.2, 9/0.0}
③ (M+L) max = {0/0.3, 1/1.0, 2/1.0, 3/0.6, 4/0.3, 5/0.2, 6/0.0}
④(M×M)+(H×L) max = {0/0.0, 1/0.2, 2/0.3, 3/0.6, 4/0.6, 5/0.6, 7/0.6, 8/0.3, 9/0.3, 10/0.2, 11/0.3, 12/0.3, 15/0.2, 18/0.0}
<최종여지함수값> $S_3 = \{0/0.0, 1/0.6, 2/0.3, 3/0.6, 4/0.6, 5/0.6, 6/0.3\}$
<의사결정 추론값> $(3.Low) = \{(0.0-1.0)^2 + (0.6-0.6)^2 + (0.3-0.2)^2 + (0.6-0.0)^2 + (0.6-0.0)^2 + (0.6-0.0)^2 + (0.3-0.0)^2\}^{1/2} = 1.45$ $d(S.Medium) = \{(0.0-0.3)^2 + (0.6-1.0)^2 + (0.3-1.0)^2 + (0.6-0.3)^2 + (0.6-0.0)^2 + (0.6-0.0)^2 + (0.3-0.0)^2\}^{1/2} = 1.28$ $d(S.High) = \{(0.0-0.0)^2 + (0.6-0.2)^2 + (0.3-0.6)^2 + (0.6-1.0)^2 + (0.6-0.0)^2 + (0.6-0.0)^2 + (0.3-0.0)^2\}^{1/2} = 1.10$
<해지적용 추론값> 1. $\tau: (1.45-1.10)/3 = 0.12$ 2. $\bar{y}: 1.10-1.28 = 0.18$ 3. $y \geq \tau: 0.18 > 0.12$ 4. $\alpha: 1.10$ 5. Less Medium

현실적으로 포항 지역은 경주지역에 비해 역사적인 관광 자원이 확연히 적다. 결국 새로운 관광 아이টে을 개발을 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럴 경우, 해양에서 찾는 것이 충분히 타당성 있는 판단이 될 수도 있다. 포항시에서도 해양 관광 상품 활성화를 위해 한반도에서 가장 해가 일찍 뜨는 정체성을 살려 호미곶 해맞이 축제를 하고 있고, 연오랑 세오녀라는 전설 속 설화를 관광자원화 하여 많은 기반을 넓혀 가고 있다. 본 연구 논제인 동해안 고래관광 개발을 중심으로 포항시가 관광 포항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표5-26>에 제시된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정비요인(W2) 역시 하부요인인 고래관광 상품 홍보 기능 강화요인, 고래관광 지역 안내 정보시스템 정비의 실현가능도와 발생가능도에 의해 평가된 결과이다. 유사추론에 의한 의사결정의 수정결과는 기준치(τ)가 유사도(\bar{y})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유사도 비교에 의해 유클리디안거리의 최소값인 0.6(α)의 값이 채택되면서 고래관광 상품 개발 타당성에 있어 타당수준이 정규적으로 낮은 중간 수준(Less Medium level)임이 파악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포항의 고래관광상품 개발의 하부구조의 취약성과 지역정보시스템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고래관광지역

정보시스템 형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포항지역의 관광정보시스템은 체계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포항해안권이 고래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앞서 고래관광 문화 체험 강화요인(W1)이 상대적으로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역정보 시스템은 그것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표5-27>은 고래관광 인프라 구축 요인(W3)은 하부요인인 고래관광 유람선 개발, 고래관광객 편의기반시설의 실현가능도와 발생 가능성에 의해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어 의사결정치의 값(α)이 1.10을 기록함으로써 다소 낮은 중간수준(Less Medium level)의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타당도 결과치는 앞서 고래관광지역정보시스템 정비요인(W2)에서 나타났듯이 고래관광 문화 체험 강화요인(W1)이 포항 해안권에 가장 우선적이 개발 요인이고 본 요인인 고래관광 인프라 구축 요인은 그와 관련하여 개발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중 고래관광 유람선 개발은 포항 지역의 장점인 독도와 울릉도를 출항하는 선착장이 있어 해양 기반 시설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인프라 구축을 계획 할때 이러한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포항지역의 경우, 경북 해양관광의 거점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에 독도 활성화와 울릉도 관광 개발과 맞물려 거시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독도는 전 국민이 한번은 가보고 싶은 관광지라는 면에서 동해안 고래관광 상품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동해안 개발의 관광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독도로 갈 수 있는 교통 편의는 취약한 현실에서 결국 동해안 관광 인프라 구축은 해양 교통 강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제 6 장 결론 및 한계점

지금까지 논의된 특화된 지역 관광 상품을 바탕으로 한 관광개발전략의 방향성이 현시적으로 관광정책을 입안하거나 관광 상품개발의 투자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여전히 과학적인 합리성이나 객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무시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관광개발의 이념과 관광객의 진정한 욕구충족을 위한 관광 마케팅적 사고의 정립이 가장

중요한 논제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단순한 분석이나 평가 작업의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인식도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양시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은 한국최초로 고래관광을 대상으로 한 지역관광 상품개발연구로서 선형적인 지표를 산출하였으며 보다 광역적인 동해권역을 연구의 중심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방법론 적용에 있어서도 본 연구의 대상인 동해권역 고래관광이라는 특수한 해안생태 관광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세분화 된 고래관광 상품개발전략을 보다 다면적 차원에서 시도하게 된 것이다. 해안지역과 달리 소득수준은 국민소득수준의 중산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해안 지역주민을 고래상품개발에 있어 전문가의 관점에서 시도한 인식도평가의 연구 전제가 합리적이라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원변량분석(MANOVA) 분석에 두드러진 점은, 우선 소프트웨어요인 가운데에 “역사스토리텔링국제화(SF3)”의 경우 울산과 부산지역이 높은 지적율을 보이고 있다. “관광문화콘텐츠강화에(SF1)”의 경우 경주, 포항권이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고 있다. 하드웨어에서도 “관광시설정비(HF2)”의 경우 울산해안권이(6.24)로 가장 높은 지적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광안내정비시스템(HF1)”의 경우 포항 해안권이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 analysis)의 경우 더미변수(dummy variable)화 된 동해권역의 소프트웨어 종속변인에 대하여 독립변인인 “역사스토리텔링국제화요인(SF3)”의 회귀계수가 2.42로 가장 높은 영향도를 기록한 관광안내정비시스템요인(HF1)”의 회귀계수가 .214로 부산해안권이 가장 높은 영향도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울산해안권의 경우는 생태관광 시설설요인(HF3)에서 .514로 가장 높은 영향도를 기록하였다.

퍼지이론에 의한 최종평가과정으로서 동해권역 각 해당지역별로 구체적인 타당성 평가지표가 산정되었고 이를 통해 수월하게 지역관광개발의 의사결정지표가 산출되게 되었다. 우선 현재 고래관광유람선을 운영하고 있고 고래관광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결과 값을 살펴보면, “고래관광 문화체험 강화요인(W1)”에서 유클리디안 거리측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최종 퍼지값은 2.13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보다 정교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준치와 유사

도를 비교하여 유사도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고래관광 문화 체험 강화요인(W1)”에서는 기준치(τ)가 유사도(γ)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최종타당도는 “다소 높음(*less high*)”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고래 관광지역정보시스템정비요인((W2)에서는 기준치(τ)가 유사도(γ)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서 최종타당도는 “높은 중간(*more medium*)”으로 나타났다. “고래관광인프라구축요인((W3)에서도 기준치(τ)가 유사도(γ)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서 최종타당도는 “높은 중간(*more medium*)”으로 나타났다. 부산해안권의 경우는 “고래관광 문화 체험 강화요인(W1)”에서는 기준치(τ)가 유사도(γ)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최종타당도는 “다소 높음(*less high*)”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고래관광 지역안내정보시스템 정비요인((W2)에서는 기준치(τ)가 유사도(γ)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서 최종타당도는 “다소 높음(*less high*)”으로 나타났다. “고래관광인프라구축요인(W3)에서도 기준치(τ)가 유사도(γ)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최종타당도는 “높은 중간(*more high*)”으로 나타났다.

경주해안권의 경우에는 “고래관광 문화 체험 강화요인(W1)”에서는 기준치(τ)가 유사도(γ)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서 최종타당도는 “다소중간(*less medium*)”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고래관광 지역정보시스템 정비 요인(W2)에서는 기준치(τ)가 유사도(γ)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최종타당도는 “다소 높음(*more high*)”으로 나타났다. “고래관광인프라구축요인(W3)에서도 기준치(τ)가 유사도(γ)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최종타당도는 “다소 낮음(*more low*)”으로 나타났다. ”울산 해안권의 경우는 “고래관광 문화체험 강화요인(W1)”에서는 기준치(τ)가 유사도(γ)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서 최종타당도는 “다소 높음(*less medium*)”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고래관광 지역정보시스템 정비요인((W2)에서는 기준치(τ)가 유사도(γ)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최종타당도는 “다소 높음(*more high*)”으로 나타났다. “고래관광인프라구축요인(W3)에서도 기준치(τ)가 유사도(γ)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최종타당도는 “높은 중간(*more low*)”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의의는 중요한 논점인 새로운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호 보완적인 동해안 단위지역 관광 상품개발전략이 가중치별로 구체적인 검정과정을 거쳐 규명됨으로써 과학성을 입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민의 인식도 평가결과를 관광목적지의 상품개발계획에 그

대로 적용할 수 있어, 연구의 최종목표인 단위지역 별 세부적인 상품개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지역 관광 상품 연구에 그 효용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천혜의 해양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동해권역이 과연 고래관광 상품개발 타당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수준에 도달해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동해권역 고래관광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수립과 의사결정 우선 순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동해권의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고래관광 상품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래관광의 주된 상품인 관광의 기반 조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동해권을 고래관광 벨트를 구축하여 고래생태자원과 고래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동해권의 관광자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상품 개발이 현재 시점에서 사업타당성이 가장 높다는 판단 정도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고래에 대한 생태 연구가 활성화되고, 고래관광에 대한 관광객들의 욕구가 증가되어, 구체적인 고래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기를 바란다.

A Evaluation of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a Whale Watching Tour Progra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uggestion of Appropriate Countermeasures.

- Focused The East Sea in The Korean Peninsula -

Han, Hyoung Joo

Department of Tourism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Woo- Hee)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a whale watching tour progra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suggest appropriate counter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ommunity. The study area was limited to the East Sea. The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a series of questionnaires with coastal residents in the Busan, Ulsan, Gyeongju and Pohang areas, visitors and tourist experts.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Factor Analysis, MANOVA, Logistic Regression, and Fuzzy Theory.

An emphasis was put on the recognition degree of local resident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whale watching tour program, from the viewpoint of both software and hardware. Regarding methodology, also, regional superiority was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rategy using the fuzzy theory to develop the whale watching tours.

It is extremely important tha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o develop regional tours for whale watch.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to obtain superiority among variables of regional tourist attractions in the East Sea area.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김태완·양승영·김중욱·이연구(2009). 포항 장량지구 택지 개발 공사에서 발견된 신생대 고래화석과 기타 동물 화석. 『학술연구발표논문집』 환동해발전연구원 제3회 학술심포지엄. 한동대학교: 34-45.
- 김형미(2007). 관광개발에서 지역 간 갈등의 영향요인 분석; 강원 남부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박사학위 청구 논문: 22-28.
- 김영훈(2008). 한국 연근해 밍크고래의 혼획 특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 김혜영(2007). 해양축제 활성화 방안연구: 울산 고래축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44-67.
- 김성진·장병권(2006). 미래형 관광레저도시의 개발모형. 『관광연구』, 30(6), 199-218.
- 강신겸·강현주(1999).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프트 경쟁력 강화 방안: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17-25.
- 곽행구·김농오·김지인(2008). 해양자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관광연구저널』, 22(2), 227-243.
- 권일남(2006).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서울: 미래출판사.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2008). 고래관광 검토를 위한 한반도 연해 고래류 분포에 관한 연구: 21-67.
- 농림수산식품부(2008). 『고래관광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정비 연구』. (보고서 5-12).
- 문창현(2007). 전통문화구역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과 관광개발 태도 분석. 『한국지역사회학회』, 15(4), 143-165.
- 변우희·이정열·한형주(2009). 울산지역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인식도 평가와 대응. 『관광학연구』, 33(1), 9-34.
- 변우희(2000). 관광목적지 활성화를 위한 문화엑스포 영향도 평가. 『관광학연구』, 24(1), 25-40.
- 변우희(1996). AHP를 이용한 경주권 관광개발 제약요인평가에 관한 연구: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 관광·레저연구』 8(2), 65-84.

- 변우희(1997), 퍼지모형을 이용한경주 관광권 영향도 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 관광개발학회, 관광개발 논총』, 6(1), 34-45.
- 변우희(1998). 울릉권 관광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10(1), 107-134.
- 박문용 · 최항식(1990). 『회지시스템의 응용입문』. 대영사: 241~244. : 251~261.
- 박진화(2009). 울산 고래관광의 실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3(5), 107-134.
- 박성우(2007). GIS와 RS 이미지 자료를 이용한 생태마을 개발방안 연구 : 포항 다무포 고래 해안 생태마을 계획을 중심으로. 『학술연구발표논문집』 환동해발전연구원 제1회 학술심포지엄. 한동대학교: 14-25.
- 서동주(2008). 한국 암각화의 조형대를 통한 디자인 활용 가능성: 반구대 암각화를 중심으로, 한동대학교 대학원: 12-37.
- 세계관광기구(2006). 『세계관광전망』.
- 장병수 · 변우희(2004). 관광상품 지각에 의한 관광목적지 평가. 『관광학연구』, 28(1), 83-107.
- 정규엽(1997). 국내 관광호텔 마케팅 전략 모델의 개발 및 프로젝트에의 현실적 적용에 관한 기법 (1). 『호텔경영학연구』, 6(1), 89-112.
- 정재룡(2008). 울산 장생포 고래특구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5-48.
- 이현익(2006). 고래관광 상품개발 현황,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3-44.
- 이양섭(1994). 관광자원의 개발 보전재원 확보방안 연구. 『觀光開發論叢』, 3(1), 67-111.
- 이장춘(1987). 『관광계획.개발론 : 관광발전계획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왕사.
- 이장춘 · 남태식(2003). 관광도시의 관광자원·상품연계 개발에 관한 연구. 『觀光政策學研究』, 9(1), 1-18.
- 이태희(2002). 『관광상품기획론』, 서울: 백산출판사: 33-35.
- 여호근(2005).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 개최에 대비한 지역주민의 영향도와 기대 측정. 『관광학연구』, 29(1), 229-247.
- 울산시(2008). 『울산발전 비전과 전략』. 울산시. (보고서 11-13).
- 윤지민(2008). 해양 생태관광 마을 활성화를 위한 vistors center 계획에 관한

-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24-28.
- 임은미·송경용(2006). 서남권 해양관광 리조트의 소프트웨어 개발전략. 동신대학교 『論文集』, 16(1), 481-501.
- 한국관광학회(2009). 『관광학 총론』. 6, 885-1027.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8). 『고래테마관광도시조성을 위한 마스트플랜용역』. (보고서 3-67).
- 한국관광공사(2004). 『DMZ 생태체험관광 종합개발 계획』. (보고서 25-35).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2006한국문화정책논총』. (보고서 45-56).
- 환경운동연합(2005), 『고래야 돌아와』. (보고서 34-38).
- 황창윤·박명희(2007). 관광 상품의 매력성제고 방안에 관한연구. 『경제경영연구』, 8(1), 351-374.

2. 국외 문헌

- Baggio, R. A.(2008). Symptoms of Complexity in a Tourism System. *Tourism Analysis*, 15(1), 91-102.
- Campo, S. B., & Garau, J. B.(2008). The Influence of Nationality on the Generation of Tourist Satisfaction With a Destination. *Tourism Analysis*, 13(1), 81-92.
- Candela, G. C., & Cellini, R. B.(2006). Investment in Tourism Market: A Dynamic Model of Differentiated Oligopoly.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35(1), 41-58.
- Clayton, A. G., & Karagiannis, N. A.(2008). Sustainable Tourism in the Caribbean: Alternative Policy Considerations. *Tourism and Hospitality Planning and Development*, 5(3), 185-201.
- Cracolici, F. Cuffaro., & Nijkamp, P. M.(2009). Sustainable Tourist Development in Italian Holiday Destin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Technology and Management*, 10(1), 39-47.
- Donlea, D. G.(1996). Whale and Dolphin Watching in Australia. *Proceedings of the World Congress on Coastal and Marine Tourism*, 6, 247-251.
- Fudge, D. S., Szewciw, L. J., & Schwalb, A. N.(2009). Morphology an Development of Blue, Whale Baleen: An Annotated Translation of Tycho Tullberg's Classic 188.
- Galvez, S. G., Guevara, A. G., & Caro, L. B.(2000). Cooperative Techniques and Tools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Software in Tourist Compani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s in Tourism*, 178-188.
- Hashimoto, A. B., & Telfer, D. J.(2006). Selling Canadian Culinary Tourism: Branding the Global and the Regional Product. *Tourism Geographics*, 8(1), 31-55.
- Heckel, G. B.(2001). Workshop on Sustainable Tourism and Whale

- Watching in North America: A Baja-to-Bering Case Study. *Journal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0(3), 290-295.
- Jackson, S. B., & Inbakaran, J. B.(2006). Evaluating Residents Attitudes and Intentions to Act Towards Tourism Development in Regional Victoria,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8(5), 355-366.
- Komppula, R. G.(2006). Developing the Quality of a Tourist Experience Product in the Case of Nature-Based Activity Services, *Scandinavi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6(2), 136-149.
- Muloin, S. H.(1998). Wildlife Tourism: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Whale Watching. *Pacific Tourism Review*, 2(3-4), 199-214.
- Shone, M. G., & Ali, M. P.(2008). Tourism, Public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A Turn from Neo-liberalism to the New Regionalism. *Local Economy*, 23(4), 290-304.
- Tovar, C. B., & Lockwood, M. G.(2009). Social Impacts of Tourism: an Australian Regional Case Study .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0(4). 365-378.
- Yagi, S. B., & Mohammadian, A. H.(2008). Joint Models of Home-Based Tour Mode and Destination Choices: Applications to a Developing Country,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2076), 29-40.
- Ying-zhi, G. H., & Lai-xi, G. F.(1999). A Study on the System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ourist Marketing Environment. *Journal of Chinese Geography*, 9(3), 287-294.
- Wheeller, B. H.(2000). Eco or Ego Tourism Sustainable Tourism in Question. *Lsa publication*, 50(1), 157-162.

<동해권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타당성평가 조사>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중요한 자료로서 동해권 고래관광 발전에 참고 될 것입니다.

지도교수 관광학부 변 우 희 교수

경주대 관광학부 박사과정 한 형 주

· 해당사항에 아래처럼 체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권 고래관광 상품개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니까?	전혀타당 하지않다.	대체로 타당하 지않다	조금타 당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타당 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매우 타당 하다
	1	2	3	4	5	6	7

1. 동해권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소프트웨어적 사항입니다.

1. 동해권 고래문화관광 축제 활성화가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2. 동해권 고래관광을 통한 외국과의 교류 촉진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3. 동해권 고래 관련 역사와 문화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4. 동해권 고래 자원의 관광코스화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5. 동해권 고래 관광브랜드개발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6. 동해권 고래관광 문화프로그램 강화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7. 동해권 고래관련 친환경 전략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동해권고래 관광지의 홍보기능 강화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9. 동해권 고래 생태체험관광 강화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10.동해권고래 음식문화 개발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2. 동해권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하드웨어적 사항입니다.

1. 고래를 형상화한 랜드마크가 어느정도 타당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2. 동해권고래 관광유람선 개발이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3. 동해권 고래관광관련 체험시설이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4. 고래 주제 아쿠아리움 건립이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5.고래 관광 돌고래 훈련시설 정비가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6. 고래관광 안내정보시스템 정비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7. 고래 관광객의 편의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고래관련 생태연구기관 확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9. 고래 생태박물관 및 전시관 조성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10. 동해권 고래 마을복원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시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거주지는?

① 부산 해안 권 ② 울산 해안 권 ③ 경주 해안 권 ④ 포항 해안 권

2. 귀하의 해당사항은?

① 공급자 측면(관광종사원, 지자체 관련공무원, 관광사업자 등)

② 이용자 측면(관광객, 기타 등)

3.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4.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60대 이상

5.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결혼 ③ 기타

6. 당신의 소득수준은? ① 100-200 ② 201-300 ③ 301-400 ④ 400만 원 이상

7. 귀하의 교육수준은? ① 고졸이하 ② 대졸 ③ 대졸 이상

8. 귀하의 거주 년도는? ① 1-5년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년 이상